

經濟開發과 經濟體制

朴 喜 範

차	레
I. 序 論	
II. 發展段階와 經濟體制	
III. 自然的 내지 國民經濟的 個性의 差異와 經濟體制	
IV. 「마르크스」社會主義	
V. 後進國의 經濟體制	
1. 制度改革의 問題點	
2. 後進型의 混合經濟體制	
VI. 結 論	

I. 序 論

經濟體制란 人間이 物質的 生活을 영위하는 經濟機構(economic organization)이다. 그리고 經濟體制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經濟體制(economic system)가 하나의 社會秩序로서의 存在價値를 갖자면, 그 體制를 구성하는 土地制度·銀行組織·價格機構·利潤動機등을 규제하는 諸經濟制度(economic institutions)가 서로 矛盾·對立하지 않는 하나의 綜合的 體系를 이루어야 한다.⁽¹⁾ 이렇게 보면 經濟體制는 그것이 內包하는 諸經濟制度의 一般적 特征에 의해 性格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人間의 物質的 生活樣式은 경제적 발전단계, 더욱 狹義로 해석하면, 生産力의 발전단계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같은 발전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自然的 및 國民經濟的 환경은 각각 다른 經濟意識을 낳게 함으로써 生活樣式을 다르게 한다. 서로 다른 생활양식은 각각 그것에 알맞는 諸經濟制度를 갖게 함으로써 특정한 經濟體制를 갖게 된다.

近代社會로 移行함에 따라 人間의 물질적 生活樣式의 基本性格을 결정지워준 것은 資本의 蓄積樣式인 것 같다. 역사적 발전단계와 자연적 내지 국민경제적 特性에 알맞는 資本

(1) 經濟體制와 經濟制度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Ralph H. Blodgett,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Revised Edition,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49, pp. 21-23.

蓄積樣式은 제경제체도의 성격을 결정지웠으며, 나아가 여러가지 경제체제를 낳게 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축적양식은 資本家가 주체가 되는 資本主義的 蓄積樣式이든, 全體人民이란 美名 아래 실질적으로는 少數의 獨裁者에 의해 恣意的으로 결정되는 社會主義的 蓄積樣式이든, 獨占資本家를 비호하는 全體主義的 蓄積樣式이든, 혹은 隸屬으로 부터의 經濟的 自立을 위한 후진국의 混合經濟的 蓄積樣式이든 그 原理에 있어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경제의 制度와 體制가 近代社會에 있어 人間의 물질적 生活樣式을 규제하는 資本의 蓄積樣式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곧 經濟發展(economic development)을 이룩할 수 있는 能率과 직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자본축적은 좁은 뜻으로 해석할 때 經濟發展과 同義語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經濟發展은 資本 뿐만 아니라, 技術과 勞動量, 그리고 이들 諸要素가 합리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社會的 諸制度 및 國民性등 여러가지 環境의 마련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資本이다. 따라서 資本의 蓄積樣式 여하는 곧 경제발전의 能率문제를 좌우하며 역사적 발전단계나 자연적 내지 국민경제적 特性에 가장 알맞고 能率의인 자본축적양식은 그러한 樣式을 制度的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合理的인 經濟體制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經濟發展과 經濟體制는 서로가 因이 되고 果가 되는것으로 해석된다. 傳統的 내지 植民地的 隸屬상태에서 경제적 自主를 꾀하려는 轉換期의 후진국에 있어서는 자본축적, 즉 경제발전에 가장 알맞고 능률적인 經濟體制의 확립이 요청됨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이 小論에서는 후진국의 經濟開發과 관련된 經濟體制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²⁾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近世이후의 역사적 發展段階와 관련된 經濟體制의 變質過程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자본주의적 諸經濟體制이겠지만, 비록 자본주의적 體制라는 同一語속에 파묻혀 문제의 限界를 흐리게는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적 발전과정과 더불어 變質되어 왔으며, 결코 萬古不變한 하나의 體制로 叙述될 수는 없다. 둘째로 같은 時代 背景을 가지면서도 경제발전단계의 差異, 혹은 자연적 및 국민경제적 環境의 差異로 말미암아 最適의 經濟體制를 따로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歷史의 個性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利害關係가 相反하는 先進國과 後進國의 경제체제는 당연히 그 내용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자연적, 국민경제적 個性의 차이에 따라서도 人間의 物質的 생활양식

(2) 經濟發展과 經濟開發은 英語로 表示할 때 다 같이 economic development 인 것이나, 여기서는 후자를 「政策的인 意慾」을 내포하는 뜻으로 사용한다.

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경제체제 간에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諸經濟體制를 후진국의 능률적이며 最適의 경제개발이란 價値判斷基準에서 評價함으로써 오늘날의 후진국 특히 韓國의 경제체제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發展段階와 經濟體制

이 節에서의 論議는 近世이후 資本主義經濟의 발전과 더불어 變質되어온 經濟體制上の 制문제와 관련된다. 따라서 각 國民經濟의 자연적 내지 국민경제적 個性의 差異와 경제체제와의 關係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資本主義的 經濟體制 그자체의 變質過程을 논의의 對象으로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資本主義라 하더라도 그 경제적 발전 단계에 따라 그 경제체제도 내용의 變質을 가져왔던 것이다.

개괄적으로 말해서 生産力이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하게 되면, 그 社會를 지배하는 經濟勢力도 交替된다. 經濟勢力의 交替는 그들의 利害關係에 가장 알맞는 새로운 諸經濟制度를 확립하게 되며, 나아가 이러한 諸制度의 變化는 그 일반적 性格, 즉 經濟體制의 性格을 變質시키게 마련이다. 이리하여 새로운 經濟體制가 확립된다. 따라서 크게 보면 같은 屬性을 갖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달라지게 마련인 것이다.

一般史的 觀點에서, 경제발전단계가 다름에 따라 경제체제의 내용이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가를 극히 개괄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 문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치 않다. 흔히 重商主義 商業資本主義 혹은 前資本主義 등으로 이해되고 있는 近世初期의 諸經濟制度는 商業資本의 原始的 蓄積에 알맞고 보다 그것을 위해 能率的인 것이었다. 따라서 封建社會로부터 初期資本主義段階로 移行된 경제체제는 商業資本을 위한 경제체제였던 것이다. 각종 輸出入의 統制 輸出增進을 위한 각종 獎勵策 및 諸特權, 使用者條例등 어느 하나 商業資本의 利害關係를대변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家內工業(domestic industry)을 매뉴팩처(manufacture)로 발전케 하는데 있어서의 國家的 育成策도 사실상 輸出增進에 의한 商業資本의 權益保護를 위해서였던 것이다. 重商主義를 어떤 側面에서는 國內工業保護政策이었다고 말하는 「리스트」(F. List)나 「슈몰러」(G. Schmoller)등의 주장은 重商主義의 경제체제가 가져다 준 하나의 副產物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³⁾

商業資本主義 末期 즉 18世紀後半의 英國의 매뉴팩처는 技術의 발전으로 機械단 生産

(3) 崔文煥, 『經濟學史』 日新社, 1959, p. 24 및 P. 34 參照.

過程에 도입되면 새로운 경제적 발전단계로 이행될 수 있는 産業資本主義의 모든 前提條件을 具備했던 것이다. 이러한 時代의 背景아래 확립된 産業資本主義의 경제적 체제는 産業資本家의 利害關係를 대변하는 諸經濟制度로 형성된다. 각종 輸出入의 制約은 撤廢되고 일체의 國家保護措置 및 商業資本家에 부여된 諸特權과 特惠措置는 점차 박탈된다. 이리하여 古典의 의미에 있어서의 自由放任의 資本主義 경제적 체제가 확립된다. 自由放任에 기초를 둔 競爭, 經濟動機 및 自由企業에 알맞고 그것을 위해 能率의인 제경제체도가 古典의 資本主義體制의 特徵이었던 것이다. 19世紀 後半, 대체로 20世紀로의 轉換期에 있어 英國經濟가 産業의 集中을 특징으로 하는 獨占資本主義段階로 移行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다. 아나 産業資本主義가 金融獨占資本主義로 이행하는 과정은, 비록 당시의 後進의 獨逸資本主義의 個性을 강력히 代辯하고는 있지만, 「힐퍼딩」(R. Hilferding)의 著作에서 잘 叙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⁴⁾ 독점자본주의 諸制度, 이를테면 企業의 獨占力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獨占利潤을 極大化 할수 있도록 짜여진 組織과 機構와 制度는 독점자본주의적 경제적 체제의 내용을 이룬다. 自由放任에 의한 自由競爭, 그리고 自由競爭이 가진 경제적 기능은 否定되고, 獨占利潤의 極大를 위한 獨占體 그 자체의 自律的 統制體制가 확립된다. 獨占價格의 操作, 生産量의 自律的 制限, 政治를 金權의 侍女로 만든 帝國主義的 侵略등 利潤獲得의 手段으로 등장하는 機構와 制度는 독점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인 것이다. 이리하여 오늘날에 있어서도 자본주의라면 바로 그것인양 錯覺을 일으키고 있는 古典의 資本主義體制의 諸長點은 여지없이 무너지는다. 독점자본주의적 諸制度가 景氣變動을 自律的으로 統制하고, 革新(innovation)에 더욱 伸縮的으로 對應할 수 있는 能率의인 체제라고 주장하는 「슈페터」(J. A. Schumpeter)의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獨占資本主義가 점차 내포하게 될 經濟的 諸矛盾을 타개하여 加一層의 生産力 발전은 고사하고 景氣變動 그 자체의 自律的 調節도 巨視的 觀點에서 볼때 오히려 矛盾을 확대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일반적 논의가 더욱 妥當性을 갖는 것 같다.⁽⁵⁾

이제 獨占資本主義를 인계받은 修正資本主義의 體制를 논의할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와 같은 「슈페터」의 강력한 獨占擁護論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獨占體에 의한 自律的 經濟統制體制는, 國家에 의한 巨視的 經濟統制를 內容으로하며 그것에 알맞고 보다 能率的 統制가 가능한 修正資本主義 體制로 代替되지 않을 수 없었다. 독점자본주의의 末期로부터 오늘날까지 문제시되고 있는 反獨占法(Anti-Trust Act) 혹은 公正去來法(Fair Trade Act)

(4) R. Hilferding, *Das Finanzkapital*, 1910.

(5) J.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1943.

등은 독점자본주의나 修正資本主義體制의 本質을 變形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것만으로는 變形할 수도 없는 것이다. 修正資本主義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지 않다. 그것은 이 나라의 경제학도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정자본주의체제 그 자체도 그 앞 段階의 그것이나 마찬가지로 巨視的인 眼目에서는 獨占資本家の 利害關係에 영합되는 諸制度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修正資本主義體制의 특징은 「베버리지」(W. H. Beveridge)의 貢獻을 크게 입은 社會保障制度 및 國民財政理論(Theory of National Finance)을 뒷받침으로 하여 完全雇傭機構, 그리고 그것의 美國型인 美雇傭法 機構가 代辯한다.⁽⁶⁾ 이러한 수정자본주의적 諸制度의 확립은 더욱 높은 次元에서 볼 때 「케인즈」(J. M. Keynes)를 이론적 背景으로 한다는 것은 두 말할 여지도 없다.⁽⁷⁾

反獨占法이나 公正去來法, 이보다 더욱 중요한 社會保障制度 등은 微視的 觀點에서 볼 때 獨占資本家の 利害關係와 전적으로 背反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 그것은 확실히 獨占資本의 橫暴로부터 一般大衆을 救濟하는 福祉國家(welfare state)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國民財政理論을 뒷받침으로 하는 完全雇傭機構는 獨占資本을 위한 보다 安全한 利潤極大의 土전을 總전처럼 植民地 아닌 國內市場에서 마련하게 된다. 이런 뜻에서 보면 수정자본주의 體制는 모든 經濟體制가 그러했듯이 경제적 生産力의 발전을 제약하지 않는 限에 있어서, 바꾸어 말하면, 生産力發展의 桎梏으로 화하지 않는 단계까지의 過渡期的 體制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福祉國家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며, 完全雇傭機構가 내포한 資源의 非生産的 浪費를 止揚하여 보다 能率的으로 生産力을 발전시킬 수 있는 現代社會主義體制로 移行하는 過渡期的 現象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아마 現代 社會主義는 「슈페터」의 「社會主義文化의 不確定性」의 가능한 하나의 케이스이지만, 民主的 要素를 排除할 수는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III. 自然的 내지 國民經濟的 個性의 差異와 經濟體制

역사적 발전단계와 경제체제의 관계를 분석한 前節에서의 結論은 다음과 같다. 그 內容을 구성하는 諸制度 相互間에 일정한 體系를 갖는 經濟體制는, 일정한 經濟勢力의 利害關係를 代辯·擁護하는 것이지만, 國民經濟 그 자체의 利害關係, 즉 生産力의 발전과 矛盾

(6) W. H. Beveridge, *The Full Employment in a Free Society*, London, 1944, pp. 131-142 및 美國의 法令, *The Employment Act of 1946*.

(7) J. 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 1936.

對立될 때는 발전된 生産力에 그들의 經濟的 기반을 두는 새로운 經濟勢力的 등장과 그리고 그들의 利害關係를 代辯·擁護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로 바꾸어 진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특정한 經濟體制的 存續 妥當性은 특정한 經濟勢力的 이해관계와 國民經濟의 이해관계, 즉 國家利益과 私益이 일치해야 한다는 條件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첫째로 新舊 經濟勢力 및 經濟體制的 交替과정은 機械的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社會的 摩擦과 論爭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그 社會의 指導的 엘리트의 理想的 鬪爭의 戰利品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같은 時代의 背景을 가지면서도, 경제발전정도가 뒤떨어진 後進國이나 自然資源이 貧弱한 나라에서는 더욱 심각한 樣相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후진경제의 經濟體制는 경제발전단계가 뒤졌다고 해서 그 體制的 變質과정은 반드시 先進經濟의 그것을 뒤쫓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의 經濟發展을 위해 알맞고 보다 能率的인 經濟體制를 창조했으나, 그러한 체제의 創造 여하가 곧 그들의 國民的 生産力의 發展速度를 결정하는 까닭이다. 생산력 발전이 體制的 變質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理性的 努力에 의한 諸制度和 體制的 改善은 國民生産力의 發展速度를 飛躍的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歷史는 증명해 주고 있다. 그 例로서 重商主義 단계에 있어서의 후진국의 경제체제를 대표하는 重農主義體制와 產業資本主義 단계에 있어서의 후진국의 利害關係를 대표하는 保護主義體制를 들 수 있다.

둘째로 같은 경제적 발전단계에 처해 있으면서도, 自然資源이 稀少한 나라에서는 보다 共同體的이며, 보다 集中的인 國家의 統制와 指導를 내용으로 하는 성격의 經濟體制를 창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그러한 경제체제가 더욱 所望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그러한 體制를 창조하는 것이 生産力 發展이란 國民經濟의 이해관계에 보다 알맞고 보다 能率的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한 일반적 論議는 資源을 가지지 못했던 西歐나 日本이 組織的인 國家統制와 指導를 내용으로 하는 體制에 의해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발전하였고,⁽⁸⁾ 일반적으로 資源이 貧弱한 溫帶地方이 資源이 豊富한 熱帶地方에 앞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사실에 적용된다. 물론 西歐가 근세에 들어와서 東洋을 앞서게 되는데 보다 넓은 의미의 文化史의 설명이 필요할런지도 모른다.⁽⁹⁾ 그러나 보다 中央集權的이고 조직적인 경제체제의 장점이 生産力 發展에 미친 영향을 경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해 우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은 「파시즘」이다.

(8) P. A. Baran,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Monthly Review Press, 1956, (日譯) p. 183.

(9) J. Robinson, *Economic Philosophy*, Australia, Penguin Books, 1962, pp. 94~116. 「로빈슨」 教授는 이 문제에 관해 매우 재미있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면 順序에 따라 역사적 發展段階의 差異에 기인하는 經濟體制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重農主義부터 고찰해 보기로 하자. 중농주의는 근세 초기 후진 農業國家가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唯一의 理想型이었다. 당시의 후진 농업국이 선진국의 重商主義에 대항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중농주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封建末期의 경제적 支配勢力인 地主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면서도 국민생산력의 발전이란 국민경제의 이해관계와 합치하는 線에서 경제적 침체의 악순환을 타개하려 했던 것이다. 중농주의는 사실상 하나의 理想型으로 그치고 말았지만, 그것이 제안한 制度改革論, 특히 유명한 單一稅論은 중농주의적 경제체제를 대변한다. 이와 같이 英國 및 和蘭의 중상주의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면서도 당시의 後進農業國인 「프랑스」는 중농주의적 경제체제에 의해 後進性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었던 것이다.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면서도 先進產業資本主義에 뒤떨어진 후진주의 경제적 近代化를 달성할 수 있는 체제가 다름 아닌 美國과 獨逸등의 保護主義(Protectionism)였다. 保護主義論者들이 제시한 制度改革論은 중농주의자들이 제시한 그것이 중상주의와 대척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自由放任論者의 그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영국의 「스미드」(A. Smith)는 모든 重商主義의 통제와 특권의 철폐를 주장했지만 독일의 「리스트」나 미국의 「해밀턴」(A. Hamilton)은 공업에 대한 補助와 保護關稅制度를 제창하였다. 이처럼 保護主義는 바로 後進產業資本의 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 그리고 自由放任의 諸制度 대신 國內幼稚工業을 보호하는 가능한 모든 諸經濟制度를 내용으로 하는 보호주의적 경제체제는 실지로 後進產業資本을 자유 방임하의 영국의 그것보다 더욱 빠르고 더욱 능률적으로 產業資本主義 단계로 끌어 올릴 수 있었다.

끝으로 國民經濟의 個性的 差異에 기인하는 經濟體制의 하나인 「과시즘」體制는 이들 두 「케이스」와는 사정이 다르다. 「과시즘」體制는 경제발전의 先·後關係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英·美·佛과 경제적으로 같은 발전단계에 있었지만, 그들의 自然的 個性의 差異 즉 자연자원의 貧困, 이를테면 殖民地를 가지지 못하는 이른 바 Have-not Nations 이었기 때문에 창조된 하나의 先進經濟體制였다. 修正資本主義와 「과시즘」은 獨占資本主義가 다 같이 外延的 成長型(pattern of extensive growth)의 帝國主義的 經濟成長이 불가능하여 內包的 成長型(pattern of intensive growth)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정에서 발생한 선진국의 경제체제였다. 이런 뜻에서 修正資本主義와 「과시즘」은 雙生兒인 것이다.

外延的 成長에서 內包的 成長으로의 轉換과 같은 국민경제의 體質的 變化過程에서는 다

같이 私的 利害관계보다는 公的・國家的 利害관계가 앞서며, 따라서 計劃 내지 국가의 統制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광대한 植民地나 半植民地 혹은 풍부한 국내자원을 가지는 이른바 Have Nations 였던 英・美・佛은 집약적 國家計劃 혹은 指導없이도 失業等 경제적 諸困難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巨視的 間接的 經濟計劃, 즉 「베버리지」의 國民財政理論으로서 충분하였다. 이에 반해서 어떤 의미에서나 自然資源이 부족했던 소위 Have-not Nations 인 伊・獨은 보다 집약적이며 보다 강력한 직접적 經濟計劃이 아니고서는 自然資源과 人的資源의 不均衡 및 外延的 成長으로부터 內包的 成長으로의 보다 加速度的인 경제의 體質變化를 이룩할 수 없었다. 특히 伊太利는 경제의 內的 脆弱性 때문에 第1次大戰 직후 混亂期로 접어들었고 世界大恐慌에 앞서 1926년에 이미 심각한 不景氣를 맛보지 않을 수 없었던 관계로 독일에 앞서 독특한 「파시즘」體制를 형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는 「파시즘」體制에 관한 제특징을 논의할 만한 여유는 없다. 그러나 社會主義의 특징이 生産手段의 國有化나 企業의 國營에 있는데 반해서, 「파시즘」의 그것은 생산수단의 所有와 經營을 원칙적으로 민간인에게 맡기고, 자원의 配分에 대해서만 강력한 國家統制를 가함으로써, 外延的 成長에서 內包的 成長으로의 工業構造의 전환 및 完全雇傭과 食糧自給이란 諸目標을 달성하려는 體制였다. 이들 목적만을 달성하는데는 國家가 직접 生産手段을 所有하거나 運營할 필요는 없었다. 다만 流通機構만은 國家統制 아래 두어 資源을 그러한 국가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配分하는 것으로 족했다.

流通機構(marketing machinery)를 국가가 장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生産機構(organization of production)를 業種別 혹은 產業別로 결합시켜, 개개의 企業이 購入하거나 販賣하는 모든 原料와 製品을 이들 聯合體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면 되었다. 따라서 原料生産者와 그 加工産業의 公司 또는 加工産業의 公團, 그리고 小賣商과 最終需要者간에서는 個人 대 公司 혹은 公團 또는 個人 대 小賣商 간에 現金으로 물자가 去來되지만, 그 밖의 모든 中間財의 去來는 公司 대 公司 혹은 公團 대 公團 간의 手票去來를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民間企業體도 原料와 제품의 賣買가 불가능한 조직이다. 이러한 流通機構 아래에서는 모든 資源은 국가가 원하는 제목표, 즉 內包的 成長型으로 工業의 體質改善, 이를테면 강력한 경제적 民族主義의 實現이라든가, 雇傭의 極大 혹은 食糧自給을 위한 農業計劃등으로 配分될 수 있었던 것이다.

「伊太利」는 전국의 産業을 그 종류에 따라 22個의 業種別 公司(category corporations)로 조직화했고,⁽¹⁰⁾ 독일은 全國經濟會議所(National Economic Chamber) 아래 지역별 경제회

(10) W. G. Welk, *Fascist Economic Poli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8, pp. 108—143.

의소를 두고, 그 밑에 일곱개의 産業公團(Estate of Industry)——工業・貿易・銀行・保險・電力・觀光 및 手工業——을 두었으며, 특히 工業公團은 다시 일곱개의 小工業公團——鑛業・機械 및 精密機械・鐵鋼・窯業・化學工業・皮革 및 纖維 그리고 食糧生産——으로 조직되어 있었다.⁽¹¹⁾ 그리고 이러한 産業公司나 産業公團을 행정적으로 통솔하는 公司省(Ministry of Corporations)이나 經濟省(Ministry of Economic Affairs)에 있어서 모든 經濟部處를 管掌할 수 있는 副首相의 資格이 부여되었다. 물론 伊太利의 産業公司나 독일의 産業公團은 統制機構이지 그 자체 生産을 담당하는 經濟機構가 아니며, 그 구성도 「과시즘」 특유의 政黨員과 專門家 및 해당産業의 代表(그리고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 대표도 포함됨) 등으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이 機構는 자본주의 체제하의 모든 中間商人(middleman)을 代置하며, 公司省 혹은 經濟省의 계획에 의하여 資源을 配分하는 기구로 생각하면 크게 어긋남이 없다. 이러한 「과시즘」의 經濟體制는 그 能率에 있어 확실히 修正資本主義의 그것보다 우수하였다. 예를 들면 독일의 第1次 4個年計劃(1933—36)은 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生産面에서도 그렇지만, 世界에서 가장 우심했던 독일의 失業問題를 완전히 해소했고, 이태리의 農業增産 7個年計劃(1928—34)에서는 특히 小麥生産性에서 1909—14年間の 平均을 100으로 할 때 1935年엔 127.1에 달함으로써, 1935年の 小麥輸入量은 1909—13年間の 平均輸入量の 不過 2.6%밖에 되지 않아 거의 自給水準에 도달하였었다. 독일의 第1次 4個年計劃立案者였던 「샤하트」(H. Schacht)가 軍需工業 아니고서도 독일이 경제적으로 계속 번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 실제로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A. Hitler)가 결국 독일을 侵略戰爭으로 몰아 넣었지만, 「과시즘」의 經濟機構는 사실상 經濟的 能率에 있어 修正資本主義의 그것보다 우수했고, 獨裁者에 의해 領導되지 않는 한 수정자본주의처럼 平和的으로 經濟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었다.⁽¹²⁾

修正資本主義나 「과시즘」이 1930年代에 다 같이 帝國主義的인 外向的 擴大(outward-looking extension)에서 內向的 擴大(inward-looking extension)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던 經濟的 民族主義(economic nationalism)는 經濟發展의 段階에 있어서나 시대적 背景에서 같은 性格을 띠고 있었지만, 그들 國民經濟의 個性에 따라 經濟體制는 엄청난 차이점을 가

(11) M. Y. Sweezy, *The Structure of the Nazi Econom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14, p. 40 및 F. L. Neumann, Behemoth, *The Structure and Practice of National Soci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2, pp. 242—245.

(12) W. G. Welk, *ibid.*, pp. 194—5 및 塚本健, 『ナチス經濟—成立の歴史の論理—』東京大學出版會, 東京, 1963, pp. 248—251. Hans Schacht와 A. Hitler의 理念差異를 생각해 보라.

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그들의 個性에 맞는 체제가 아니고서는 그들 자신의 經濟問題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IV. 「마르크스」社會主義

蘇聯의 社會主義는 엄밀한 의미에서 「마르크스」(K. Mark)가 豫見한 社會主義는 아니었다. 「마르크스」의 經濟發展段階說에 의하면 후진국인 「러시아」에서 社會主義가 먼저 탄생할 理論의 根據는 없다.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는 社會主義에 대해 生産手段의 國有化와 産業의 國營을 예견했을 뿐, 사회주의의 經濟體制의 원리에 대해 조금도 밝힌 바 없다. 그래서 「마르크스」主義者들은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사회주의의 特殊型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소련의 社會主義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國民經濟의 개성적 差異에 기인하는 異質의인 經濟體制에 대해서는 이미 논했다. 즉 같은 時代的 背景을 가지면서도 경제 발전상의 先·後進關係에 의하여 先進國의 重商主義에 대한 後進國의 重農主義, 그리고 선진국의 自由放任의 産業資本主義에 대한 후진국의 保護主義의 産業資本主義에 관해 논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의 獨占資本主義에 대칭되는 후진국의 經濟體制는 논하지 않았다. 1868年 日本의 明治維新은 先進 獨占資本主義에 의한 植民地를 모면했던 유일한 후진국近代化過程이었기 때문에 적당한 예가 되지 못한다. 이것은 오히려 後進産業資本主義의 特殊型이었다. 帝國主義의 완전한 植民地로 화한 후진국은 政治的主權을 이미 상실했던 까닭에 先進經濟의 利害關係에 대항해서 그들의 國家利益을 도모하는 經濟制度나 經濟體制를 가질 수는 없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植民地가 되었다 하더라도 政治的主權만은 유지되었던 후진국 중에서 우리는 이 단계에 있어서의 두개의 후진국 開發理論과 經濟體制를 發見할 수 있다. 하나는 不發彈에 그쳤던 孫文의 三民主義이고, 다른 하나는 소련의 社會主義, 소위 그들이 말하는 「마르크스」社會主義의 特殊型이다.

理論面에서는 孫文의 三民主義가 오히려 妥當性을 가졌었고, 만일 그것이 具現되어 하나의 완전한 體制를 가지게 되었다라면, 아마 오늘의 후진국의 近代化에 많은 制度上的 指針이 되었을런지도 모른다. 三民主義의 內容 즉 民族主義·民主主義·民生主義(사실은 社會主義)는 「수카르노」의 「나사콤」體制처럼 相互 矛盾되는 傳統的 要素와 近代의 要素가 混合된 잡탕이 아니었다. 비록 세 개의 요소가 결합하는 데는 상당한 調整이 필요했을 것이나, 近代化를 가로막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의 中國은

三民主義를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外國勢力이 조직적으로 파고 들어 있었고, 地方의 封建勢力이 지난날의 인도처럼 너무나 愚昧했을 뿐 아니라, 私益에 눈이 가려져 派爭을 일삼고 있었다. 그러한 결과가 도리어 1949年 中共에 의하여 極端의 方法으로 近代化를 추구하고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大衆에게 民主的 敎育이 좀 더 보급되어 있었고 좀 더 유능한 指導者를 가졌더라면 소련이나 中共이 극단에서 극단으로의 歷史的 迂廻를 경험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소련의 社會主義體制는 獨占資本主義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독특한 후진국의 경제체제라고도 주장되는 것이다. 첫째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戰勝國의 과거의 植民地였던 후진국은 거의 그러하지만, 당시의 「러시아」는 鑛山株의 90%, 電力·鐵道·炭鑛·冶金工場 및 油田의 全部, 그리고 당시의 全株式資本의 52.5%가 英·佛·白 등 선진 獨占資本主義 諸國의 所有였기 때문에, 사실상 生産手段의 國有化 이외엔 그 회사들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다.⁽¹³⁾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두고는 「러시아」의 가능한 貯蓄源泉이 거의 완전히 外國資本의 收益이란 형식으로 海外로 流出되기 때문에 工業化에 필요한 資本動員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國民所得의 16%가 英國人과 中國人의 鑛業 및 工業利潤, 中國人의 商業利潤, 그리고 印度人의 高利貸利子로 빠져나가던 「버어마」가 1958年 대부분의 生産手段을 국유화하고, 쌀·木材·고무·棉花 및 生必需品 流通機構를 國營流通機構(state marketing)로 轉換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곳에서도 발견된다.⁽¹⁴⁾ 둘째로 企業家職 및 現代技術이 결여되어 있는 半封建的 農業國家라면 日本의 工業化가 그러했듯이 基礎工業의 國家建設과 國營에서 民營으로 移讓하는 國家資本主義(state capitalism)나 사회주의적 企業運營을 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일 뿐 아니라, 보다 成長이 빠를 수도 있었던 것이다.

「마르크스」社會主義는 선진 독점자본주의의 경제적 壓力으로부터 후진국의 國家利益을 되찾고, 能率面에서도 적어도 初期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련의 獨裁者 「스탈린」이 지나친 社會主義 「이데올로기」를 고집한 까닭에 허다한 약점을 내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첫째로 工業生産에서 生産量의 문제는 오히려 당시의 資本主義를 능가했지만, 製品의 質의 문제는 좀처럼 해결하지 못했다. 「유틀리」(W. Utley)는 약간 誇張된 것으로는 생각하나, 資本主義 국가의 기준에 따르면 소련 工業製品의 80%는 劣格品이라는 것이

(13) 權允赫, 後進國民民族主義의 研究, 大韓公論社, 1965, p. 72.

(14) L. J. Walinsky, *Economic Development in Burma, 1951—1960*, The Twentieth Century Fund, New York, 1962, 특히 p. 449 참조.

다.⁽¹⁵⁾ 그리고 生産量의 문제에 있어서도 美國이나 독일의 近代化 初期에 비하면 크게 자본주의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둘째로 더욱 결정적인 점은, 機械的 生産管理가 불가능한 農業部門의 集團農場制가 耕地面積 擴大에선 큰 장점을 가졌으나, 面積 單位當 生産高와 收穫期에 있어서의 流失등에서는 크게 資本主義에 未達했다. 畜産業에 있어서는 그 사정이 더욱 나빠서 소련은 第2次 5個年計劃 末期에서도 1913年 水準에 未達했으며, 耕作地의 不過 3%에 지나지 않는 私有地가 인정된 集團農家에서 계란의 90%와 穀物의 27%가 생산되었다는 통계상의 奇現象이 나타난다.⁽¹⁶⁾

그러나 「스탈린」이 集團農場制를 강력히 추진하고 유지한 데는 사실상 生産能率보다는 다른 이유에서 일 것 같다. 왜냐하면 集團農場制는 工業化에 필요한 보다 많은 資源을 農業으로부터 動員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穀物의 경우 生産高의 68% 이상을 公開市場價格의 25%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買上하거나 그 밖의 형식으로 工業開發에 動員했으며, 原料作物은 거의 100%를 같은 값으로 買上할 수 있었던 것이다.⁽¹⁷⁾ 이러한 制度와 정책이 소련의 經濟成長을 量的으로 빠르게 한 하나의 이유였다.

이제 간단히 集産主義의 可能한 先進國型의 하나였던 「파시즘」과 後進國型의 하나인 소련의 社會主義를 제도면에서 비교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生産手段의 國有와 國營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나, 소련에서는 이태리의 業種別 公司나 독일의 産業公團 등이 각각 하나 하나의 經濟部處로 機能해야 한다. 이리하여 소련은 聯邦政府의 경우 30餘個의 각종 經濟部處를 가지며 그 밑에 職能別 및 地域別 傘下機關을 가진다. 둘째로 중요한 점은 金融組織이다. 「파시즘」의 그것은 다만 民營企業에 대해 補完的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들의 金融組織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크게 다름이 없다. 그러나 소련의 그것은 機能別로 體系化되어 모든 經濟活動을 실질적으로 統制·管理하고 있다. 中央銀行인 「고스뱅크」(Gosbank)는 資本主義經濟의 중앙은행 機能과 商業銀行의 機能을 동시에 지니며 모든 社會主義的 企業의 去來는 職能別 系譜를 따라 반드시 「고스뱅크」를 통해 決濟하도록 되어 있다. 왜냐하면, 「파시즘」의 그것처럼 勞賃支拂을 제외한 企業體의 모든 去來는 「고스뱅크」의 當座計定을 經由하기 마련인 各企業의 手票에 의해 결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스뱅크」의 官吏는 特定 企業의 경제활동이 計劃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의 與否를 各企業의 當座計定上의 變化로 알 수 있고, 計劃 未達의 경우엔 그 企業에 대해 警告를

(15) F. Utey, *The Dream We Lost*, The John Day Company, New York, 1940, p. 200.

(16) R.H. Blodgett, *ibid.*, pp. 239—247.

(17) *Ibid.*, pp. 247—250.

발할 수 있는 權限조차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 밖에 각종 產業에 建築資金을 공급하는 銀行으로서 Prombank(공업, 무역 및 전력의 기본자금 공급), Torgbank(상업 및 소비조합의 기본자금 공급), Selkhozbank(國家農場 MTS 및 集團農場의 기본자금의 공급 혹은 집단농장의 경우 低利融資), Tzekombank(自治區 및 建築部門 자금공급), 그리고 特殊銀行으로서 民間貯蓄機關인 貯蓄銀行이 있다. (18)

소련 經濟가 그래도 능률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면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이러한 그들의 金融組織의 優秀性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金融組織은 발달한 資本主義의 그것을 그대로 模倣·修正한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르크스」社會主義體制는 「스탈린」生存 때에도 生産管理면에서 Troika System의 廢止, 獨立採算制 확립, 및 스타하노프運動(Stakhanovite Movement)을 基點으로 전개한 소위 社會主義的 經濟原理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스탈린」의 死亡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련 經濟의 成長으로 말미암아 크게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企業經營에서 지금까지 採擇되었던 Taylor System은 1958年의 7個年計劃부터 美國의 現代적 經營管理方法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리베르만」(Liberman)에 의한 利潤논쟁까지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修正社會主義的 동향은 결국 西歐式 現代社會主義(modern socialism)로의 變質過程으로 해석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19)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또 하나의 문제가 中蘇理念紛爭이다. 傳統的 價値觀과 生活樣式의 파괴 및 사회주의적 生産管理에 있어 아직도 「스탈리니즘」이 지니는 長點을 이용할 수 있는 후진적 社會主義國家인 中共和 生産力이 발전하여 修正主義를 택하지 않을 수 없는 소련은 바로 1958年을 轉機로 하여 심각한 理念紛爭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사회주의 陣營의 헤게모니 爭奪등 政治的 이유도 충분히 있는 것이나, 이러한 經濟的 이유 때문에 教條主義的 社會主義觀을 포기하지 않는 限, 그 분쟁은 해결되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一旦 私有財產制가 否定되는 限, 특정한 經濟發展 단계를 배경으로 하는 특정한 經濟勢力의 등장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社會主義者들은 주장하여 왔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은 第三階級論은 社會學의 角度에서 다를 충분한 價値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삼고자 하는 바는 그러한 社會勢力의 繼起關係가 中蘇理念紛

(18) *Ibid.*, pp. 348~357.

(19) 「리베르만 論爭」에 대해서는 서울大學校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經濟論集』 第Ⅴ卷 第1號, 1966年3月 所載 姜濱口教授의 論文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러나 姜教授는 經營學의 側面에서 分析하고 있기 때문에 筆者의 所論과는 無關하다.

爭에서 알 수 있듯이 社會主義 社會에서도 存續한다는 점이다. 어떤 經濟發展段階를 대변하는 經濟勢力이 歷史發展의 擔當者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따라서 그 時代의 支配的 經濟勢力으로서의 社會的 位置를 유지하자면, 그들의 經濟的 利害關係가 國家 혹은 民族의 利害關係와 調和되어야 한다. 만일 그들의 私的 利害가 國家利益과 矛盾・對立하게 되면 그들의 경제적 基盤은 새로 등장하게 될 經濟勢力에 의해 交替되어 왔다.

이렇듯 經濟發展過程은 社會學的 側面에서 보면 경제적 支配勢力의 交替過程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勢力交替의 契機는 私益과 公益 혹은 國家利益의 對立關係에서 발견된다. 商業資本 혹은 高利貸資本의 私的 利害關係가 國家利益인 生産力의 發展과 調和되지 않을 때 새로 등장한 產業資本家들에게 歷史的 舞臺를 移讓하지 않을 수 없었고, 獨占資本의 帝國主義的 擴大가 國家利益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자, 修正資本主義에로의 體制的 變革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여러 代表的 例 중의 하나라 하겠다.

中蘇理念紛爭의 경제적 契機도 이러한 이론적 根據에서 說明될 수 있을 것이다. 후진적 社會主義인 中共의 國家利益과 물질적으로 富裕한 先進社會主義인 소련의 國家利益이 같을 수 없고, 따라서 先進社會主義의 利害關係를 대변한 소련의 修正社會主義理論을 中共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中蘇理念紛爭의 一因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中共이 「스탈리니즘」을 固執하는 이유는, 현재의 國民厚生이란 소위 그들의 人民의 私益보다는 장래의 경제적 繁榮이란 生産力의 發展을 꾀하자면 修正社會主義의 機構보다 「스탈리니즘」的 經濟機構가 資本의 動員 및 配分 면에서 더욱 有利하다는 점일 것이다.

V. 後進國의 經濟體制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을 장황하게 叙述한 이유는, 어떠한 나라이든 간에 과거의 歷史的 經驗을 그들의 경제적 發展段階와 自然的 環境 내지는 國民經濟的 個性에 알맞게 適用하거나, 獨創의인 원리를 도입하여 이를 補完함으로써 보다 能率的인 制度와 體制를 마련하였다는 歷史的 事實을 反省하려는 데 있었다. 諸經濟體制는 巨視的으로 볼 때 새롭고 獨創의인 원리에 입각하면서도, 그 內容을 형성하는 諸經濟制度는 과거의 制度를 새로운 원리에 의하여 復活시키거나 수정하여 適用함으로써 새로운 內包를 갖게 되는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共產黨宣言』에서 資本主義의 廢虛 위에 共產主義社會가 건설된다고 豫言하였지만 소련의 戰時共產主義는 資本主義의 屬性을 갖는 諸制度, 즉 私有財產制 金融組織 및 貨幣制度등을, 이에 代替될 새로운 經濟主義를 導入함이 없이 無批判的

으로 否定했던 까닭에 결정적인 打擊을 받았으며 따라서 그러한 經濟體制는 사실상 機能할 수 없음을 立證하였다. 實質的으로 資本主義社會로 一步 後退한 소위 新經濟政策期를 經由하여, 1928 年에 시작된 소련의 社會主義는, 戰時共產主義 때와는 반대로 資本主義의 역사적 遺産을 새로운 社會主義 原理에 適應시킨 독특한 經濟體制를 확립함으로써 歪曲되게나마 社會秩序로서의 機能을 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銀行 및 貨幣制度는 물론 資本主義經濟의 生産機構인 株式會社制度和 大量生産方法, 그들 社會主義者들의 罵倒의 대상이었던 資本主義의 獨占組織인 ทรั스트 및 工場制度 그리고 資本主義의 經營組織등이 社會主義組織原理에 입각하여 새로운 體制아래 포괄되었기는 하지만, 그 形態는 그대로 存續・發展시켰던 것이다.⁽²⁰⁾

觀點을 오늘날의 후진국 經濟體制 문제로 들릴 때 무엇이 그 焦點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歷史의 敎訓은 우리에게 무엇을 暗示해 주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문제의 후진국의 歷史의 發展段階와 그 自然的 및 國民經濟의 個性에 알맞는 能率의인 경제체계의 創造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適合하고 能率의인 새로운 體制의 原理에 알맞도록 지금까지 人類歷史가 創造해 놓은 諸經濟制度를 가능한 限 修正하여 適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제도를 창조하여 하나의 合理的이고도 體系的인 經濟秩序를 마련하는 길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후진국의 경제적 後進성과 그 국민경제적 個性은 경제적 近代化를 위해 어떤 制度的 諸改革을 요구하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왜냐 하면 후진국의 經濟體制는 이러한 諸改革의 目的을 달성하기에 알맞고 경제적으로 能率의인 制度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立論의 順序로서 우선 오늘날의 후진국이 필요로 하는 制度的 諸改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명하고, 다음으로 그러한 諸改革에 適合하며 경제적으로 能率의인 諸制度和,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의 社會秩序로서 包括할 수 있는 經濟體制의 原理를 논의해 보기로 하자.

1. 制度改革의 問題點

후진국은 무엇보다도 經濟生活에 있어서 그 近代化를 가로막는 傳統的 내지 前近代의 諸要素와 歪曲되고 早熟한 獨占的 諸要素를 제거하지 않고는 경제의 成長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로스토크」教授는 이점에 관하여 所得의 흐름에 있어서의 支配力을 非生産者層에서 生産者層으로 移動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다.⁽²¹⁾ 한마디로 非生産者層이

(20) R. H. Blodgett, *ibid.*, pp. 102—8.

(21) W. 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pp. 46—7.

라고 하지만 高利貸 및 小作制度 등 傳統的인 要素와 中間商人「브로커」外換投機 不動產投機 등에 의한 商業資本의 原始的 蓄積 등 前資本主義 혹은 賤民資本主義的 要素로 나누어진다. 그뿐 아니라 후진국은 特許制度 등을 이용하여 原料 및 技術提携의 形態로 결과적으로는 先進國의 獨占資本을 위한 經濟行爲 밖에 되지 않는 買辦的 加工業이 아니면, 大量의 絶對的인 國內需要를 갖기 때문에 어떤 후진국에서나 暴利를 期待할 수 있는 生必需品 위주의 消費財工業部門에서 獨占企業을 갖는다. 그러나 그러한 獨占企業은 絶對的인 국내 수요와 獨占力을 배경으로 暴利에 의해 막대한 資本蓄積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그 자체의 國民生産力을 증대케 하는 부문에 投資하여 將來의 民族의 繁榮을 기대할 수 있는 民族資本으로의 轉換보다는 買辦的 安息處에 계속 머물러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暴利로 또 다른 買辦的 獨占企業을 꿈꾸든가 아니면 不動產이나 그 밖의 비생산적 投資機會를 모색함으로써 국민경제 發展에 逆作用한다.

이러한 傳統的 前資本主義的 혹은 歪曲되고 早熟하였으며, 先進資本의 買辦的 役割을 지속하려는 前近代의 資本蓄積 樣式을 近代的인 그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후진국이 당면한 制度改革의 첫째 課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先進을 달리는 나라의 경제제도는 낡은 制度가 生産力의 발전을 제약하게 되면 그 속에 움트고 있는 새로운 經濟勢力이 그것을 打破하여 그들에게 알맞는 새로운 制度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傾向이었고 이리하여 새로운 經濟體制가 확립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진국은 오히려 意識的으로 制度를 改革하고 새로운 原理에 입각하여 그들의 경제적 發展段階와 自然的 내지 國民經濟的 特性에 알맞고 보다 경제적으로 능률적인 體制를 확립함으로써 生産力의 발전을 초래할 수 있었다. 先進資本의 壓力을 배제하여 그들의 經濟的 近代化를 달성했거나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 機能을 內包하고 있었던 一聯의 후진국의 경제체제는 이를 立證한다. 英國 및 和蘭 등의 重商主義에 對抗한 「프랑스」의 重農主義, 英國의 産業資本主義에 對抗한 美·獨·伊·日 등의 保護主義, 先進獨占資本에 對抗하여 成功하지 못했지만 中國의 三民主義, 뿌리깊게 國內에 浸透한 先進獨占資本에 對抗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치도록 半封建的 落後性을 克服할 수 있었던 하나의 畸型的 形態인 소련의 「마르크스」 社會主義는 물론, 資源을 가지지 못한 獨占資本主義였기에 보다 강력한 內包的 成長型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던 獨·伊의 「파시즘」이 그것이다.

그런데 前近代의 資本蓄積樣式의 近代化란 다름아닌 資源의 효율적 動員과 그 生産的 配分을 통해서 民間이나 政府가 非生産的 活動에 의한 資本의 原始的 蓄積 아닌 생산적인 産業資本의 蓄積으로 志向하도록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西方經濟學은 흔히 經濟學을 資

源의 配分에 관한 學問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經濟剩餘(economic surplus)의 효율적 動員과 그것의 生産的 配分에 관한 學問이라고 再定義해야 할 것이다.⁽²²⁾ 왜냐하면 西方諸國에게는 資源, 특히 資本의 動員이 문제되지 않을뿐더러 오직 資源의 產業部門別 配分, 즉 投資만 이루어지면 문제는 종결된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經濟剩餘가 대부분 非生産的으로 浪費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 효율적으로 動員해야 하고 또한 流通部門 혹은 不動産에 대한 非生産的 投資를 防止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生産的으로 配分해야 하는 까닭이다. 후진국이 항상 貧困의 惡循環을 벗어날 수 없는 根本理由는 經濟剩餘가 地主, 寺院, 教會, 中間商人, 高利貸金者, 消費用役業者들의 手中으로 들어가서 生産的으로 投資되지 못하고, 또 그만큼 人的 資源인 勞動力이 생산적으로 雇傭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浪費되거나 非生産的으로 支出되는 物的 資源과, 또한 非生産的인 雇傭機會를 갖거나 아니면 어떠한 형태이든 고용의 機會를 갖지 못하는 人的 資源을 생산적으로 雇傭할 수 있는 制度的 基本構造(institutional framework)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非生産的인 前近代의 經濟生活樣式은 生産的인 近代의 경제활동양식으로 轉換될 것이다.

그런데 傳統的 내지 前近代의 制度的 基本構造를 바탕으로 하는 前近代의 經濟活動樣式은 그러한 制度的 基本構造를 파괴함으로써만 근대적 경제활동 양식으로 止揚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는 데서는 資本主義「파시즘」혹은 社會主義등 어느 體制에 의해서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각각 그 長短點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오늘날의 후진국의 經濟體制問題가 提起된다. 즉 이들 各體制의 長短點을 문제의 후진국의 實利를 基準으로 取舍選擇하여 그들에 가장 알맞고 가장 合理的인 制度和 體制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후진국은 19世紀的 國際分業 내지는 植民地的 產業構造의 隸屬性으로부터 탈피되어야 한다. 經濟的 民族主義에 의한 先進國 자체의 產業構造의 多樣化 및 合成化學原料 發明 등이 南北貿易 위주였던 19世紀的 國際分業體制를 파괴한지 이미 오래다. 실사 이러한 經濟與件의 변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후진국은 經濟發展을 위해 그 자체의 工業化가 필요하지만,⁽²³⁾ 이러한 與件의 변동은 후진국의 工業化를 더욱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隸屬의 이나마 19世紀的 分業 그 자체에도 의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22) Economic Surplus의 개념에 대해서는 P. A. Baran,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Monthly Review Press, 1956, Ch. 11을 참조하기 바란다.

(23) 小島清, 『外國貿易論』, 東京 春秋社 1950, pp. 198-216.

경제적 隸屬性으로부터의 탈피, 그것은 곧 후진국에게 經濟的 民族主義, 이른바 內包的 工業化(intensive industrialization)를 강요하고 있다.⁽²⁴⁾ 문제의 후진국이 自然的 環境으로 말미암아 內包的 工業化에 처음부터 限界點을 갖는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社會間接資本 및 基礎工業 등 國民經濟의 下部構造(infra-structure)를 형성하여 産業을 多樣化함으로써 輸入을 代替하고 더욱 高次元에 있어서의 새로운 國際分業이란 動態的 分業原理에 입각하여 貿易을 擴大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의 技術水準에서는 많은 部門에서 自然產原料에 대한 合成原料의 代替가 가능하므로 그만큼 國民經濟의 自然環境이 그 産業構造 및 經濟體制에 미치는 效果가 減殺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資源이 貧困한 후진국은 처음부터 國際分業에 입각한 外延的 成長을 무시할 수 없지만, 現代工業의 下部構造를 가지지 못하는 外延的 成長은 低廉한 賃金, 즉 低勞動生産性を 여건으로 하는 單純加工業의 限界를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低勞動生産性으로부터의 脫皮, 즉 실질적인 經濟成長은 불가능할 것이다.

후진국의 경제적 民族主義는 19世紀의 保護主義, 그리고 그 이후의 三民主義나 後進的 社會主義와 그 次元을 같이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의 狀況에 適合한 內包를 가져야 한다. 오늘의 후진국의 경우, 그들의 産業 중에서 代表的인 生産的 産業이라 할 수 있는 鑛業이나 農業등 原始産業이 合成原料로 代替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아직도 南北貿易의 형태로 先進國 工業에 隸屬되어 있다. 그리고 傳統的 中小工業을 제외한 그들의 製造工業 亦是 선진국의 重工業 내지 重化學工業을 위한 단순한 買辦的 加工業의 형태로 예속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19世紀的 國際分業인 原始産業 對 製造工業이란 低次元의 隸屬關係를 대체로 지속하면서, 후진국의 買辦的 加工業 對 선진국의 重工業 및 重化學工業이란 새로운 産業構造의 技術的 예속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隸屬關係를 탈피하지 못하는 한 經濟成長이나 雇傭의 계속적 增大를 期待할 수 없을 것이고 經濟的 自立도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隸屬性을 벗어나지 못하는 限 工業構造의 擴大나 深化가 가능한 誘發投資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生産的 雇傭도 加速度的으로 늘어날 경제적 基盤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오늘날의 후진국의 경제적 民族主義는 새로운 경제적 隸屬關係를 打破하고 防止하기 위한 內包的 工業化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後進型的 混合經濟體制

(24) R. Prebisch, *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UN Report), New York, 1964. Ch. III.

위에서 분석한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후진국의 경제체제는 첫째로 傳統的이거나 前近代的이며, 그리고 그러한 前近代性を 바탕으로 부분적으로는 早熟된 獨占資本主義的經濟活動樣式을 近代化하는 制度改革이 필요하며, 둘째로 새로운 경제적 隸屬關係로부터 脫皮할 수 있는 經濟的 民族主義, 즉 內包的工業化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두가지 條件을 충족시켜 주는 諸制度를, 이미 우리가 觀察한 바 있는 과거나 현재의 資本主義「과시즘」및 社會主義의 諸制度 중에서 選別하거나 새로 創造해서, 이들 諸條件을 充足하는 새로운 經濟體制의 原理 속에 統合함으로써 하나의 體系를 갖게 하는 理論的 研究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 歷史的 遺産인 先進制度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要素를 選別하거나 혹은 새로운 制度를 創造하는 경우, 이리하여 새로운 原理속에 統合된 諸制度相互間에 矛盾・對立이 있다면, 하나의 社會秩序로서 合理的인 機能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大革命 후의 戰時共產主義가 새로운 制度이긴하나 하나의 經濟體制로서의 機能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먼저 制度改革의 문제를 논의해 보기로 하자.

한마디로 말해서 前近代的 경제활동양식의 近代化를 위한 制度改革이란, 傳統的 制度이든 商業資本主義的 制度이든 혹은 후진국 특유의 獨占資本主義的인 制度이든 간에 직접 간접으로 非生産者層에 알맞고 그들의 利害關係를 代辯・擁護하는 現制度를, 生産者層(經濟主體가 民間이든 政府이든 간에)의 利害關係를 擁護하는 새로운 制度로 改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들 生産者層의 利益이 民族의 繁榮, 이를테면 國民生産力의 발전이란 國家利益과 矛盾・對立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두말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前近代的 制度를 近代化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制度가 代辯하는 私的 利害關係가 國民生産力의 發展이란 國家利益과 相衝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經濟體制이든 그것이 擁護하고 代辯하는 어떤 社會層의 私益이 國家利益과 調和하는 限에 있어서만, 하나의 社會秩序로서 妥當性和 合理性을 가지는 것이며, 이 원리는 生産手段이 國有化되어 私益이 論理上 主張될 수 없다고 社會主義者들이 말하는 바로 그 社會主義體制에서도 그 機能은 存續한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古典的 의미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產業資本主義나 「과시즘」 그리고 「現代社會主義」 다 같이 그 독특한 機能에 의해 經濟剩餘를 생산적으로 諸產業部門에 配分하는 近代的 經濟體制라는 점에서 傳統的 혹은 前資本主義的(商業資本主義 혹은 賤民資本主義)體制와 對照的이다. 그리고 重農主義만은 封建的 諸制度의 基本構造 안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 한 까닭에 하나의 過渡期的 體制라 할 수 있지만, 保護主義 三民主義(단일 實現되었다면) 및

후진적 社會主義 등 經濟體制의 諸後進型도 經濟剩餘를 생산적으로 配分할 수 있는 近代的 經濟體制였으며, 후진국은 이러한 後進型的 近代的 경제체제를 갖추고서만 경제적 後進性을 克服하여 先進經濟의 隊列로 上昇할 수 있었던 것이다. 近代的 諸制度를 도입하여 그들의 個性에 알맞는 經濟體制를 확립하는 데 失敗한 나라로서 經濟的 近代化를 달성한 歷史的 事例를 우리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면 오늘날의 후진국이 가질 수 있는 合理的 경제체제는 무엇인가? 물론 여기서 우리는 그러한 經濟體制를 一義的으로 定義할 수는 없다. 아마 「슈페터」의 「社會主義文化的 不確定性」의 概念은 후진국 經濟體制의 不確定性 原理에도 적용될 것 같다.⁽²⁵⁾ 그러나 대체로 크게 나누어 우리는 社會主義的 體制와 混合 經濟的 體制로 二大別할 수 있을 것 같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純粹한 의미에 있어서의 資本主義體制는 오늘날 存在하지 않는다. 修正資本主義도 混合經濟 혹은 二重經濟라고 한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混合經濟는 先進國型的 混合經濟가 아니라, 後進國型的 混合經濟, 이를테면 「민트」(H. Myint)의 概念의 混合經濟이다.⁽²⁶⁾ 社會主義經濟體制는 性質上 獨裁를 수반할 可能性을 가지나(아마 「슈페터」는 民主主義의 일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分析한 바와 같이 後進型社會主義는 獨裁를 수반할 可能性이 극히 濃厚하다), 混合經濟體制는 民族主義를 그 制度的 基盤으로 해야 할 것이다. 「로스토크」教授가 말하듯이 후진국의 民族主義는 經濟的 跳躍에 있어 利潤動機이상의 役割을 해왔음이 하나의 儼然한 事實이기 때문이다.

이제 문제를 混合經濟體制에 局限하여 考察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農業이 半封建的 小作制度나 商業資本, 혹은 高利貸資本 등 前近代的 資本에 의한 收奪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하여, 農業으로부터 發生하는 經濟剩餘를 農業 그 자체에 再投資하거나 그 밖의 生産的 投資로 志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후진국에서 小作制度가 廢止된 것은 벌써 過去에 속하는 일이나, 대부분의 경우 土地改革이 工業化計劃과 併行되지 못했기 때문에 土地資本을 近代的 工業資本으로 전환시키지 못했다. 이리하여 地價補償은 地主의 消費資金으로 化했거나 아니면 그것은 流通部門에의 投資 혹은 새로운 不動產投資로 지향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前近代的 資本蓄積樣式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고작이었다. 그뿐 아니라 工業化計劃에 의한 近代的 資本蓄積樣式의 一般化 및 農業과 製造業의 均衡的 발전을 꾀하지 않았던 관계로 農業部門의 低所得과 零細性은 農村을 高利貸市場으로 만들어 새로운 土地兼併傾向이 나타나게

(25) J.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1943, p. 170.

(26) Hla Myint, 「西方經濟學과 經濟發展」, 『論壇』 1966.

했던 것이다.

이보다도 더욱 중요한 사실은 農産物의 生産에서 加工 및 最終需要에 이르는 流通過程에서 각종 中間商人과 「브로커」에 의한 農業의 收奪을 放置하는 前近代의 流通機構를 그대로 存續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일 土地改革이 제대로 되어 農業部門의 經濟剩餘를 農業에 投資할 수 있는 制度的 跳躍臺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農民의 所得이 前近代의 流通機構에 의해 中間商人들에게 여전히 收奪되고 보면, 生産的 投資로 흘러갈 農業部門의 經濟剩餘는 크게 減少되고 말 것이다. 減少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에 있어서는 과거 地主에 의해 收奪당하던 剩餘部分까지 中間商人에 의해 收奪당함으로써 農業의 近代化는 조금도 改善되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土地改革으로 말미암아 農産物의 市場構造가 크게 變化하기 때문이다. 小作制度下의 農産物市場構造는, 市場出荷 가능한 農産物의 量이 地主가 거둬드리는 小作料에 의해 결정되는 까닭에, 地主對 中間商人의 競爭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農産物 販賣에 있어 購買寡占의 現象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地主없는 農産物市場은 수많은 零細農 및 自家農對 少數의 中間商人 간에 競爭이 이루어 짐으로 購買寡占이 성립한다. 따라서 農産物價格은 季節的으로 더욱 크게 變動하며, 그러한 계절적 變動의 幅이 확대되는 만큼 中間商人은 寡占利潤을 얻으며, 따라서 農民의 所得이 그만큼 中間商人에게 移轉된다. 이리하여 農民에게 보이지 않는 형태의 地主가 새로 등장하는 셈이 된다. 農産物價格의 平準化政策은 價格水準의 策定問題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流通機構를 前提로 하는 한 政策效果를 거두기 어렵다. 農民의 所得이 中間商人에게 移轉되는 것은 비단 農産物 販賣過程에서만이 아니고 農民이 필요로 하는 營農物資 및 生必品の 購買過程에서도 이루어진다.

農民이 流通過程에서 收奪당하는 所得部分을 農民에게 되돌려 주어 農業部門에서의 投資를 助長할 수 있게 하고, 한편 流通部門에서 형성되는 所得의 일부를 보다 정확하게 租稅로 吸收해서 財政投資로 돌리기 위해서는, 合理的인 農協機構를 媒介로 하는 農産品의 流通機構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즉 農産品의 販賣 및 加工 그리고 農民이 필요로 하는 物品의 購買가 農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近代의 流通機構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종래 農産物이나 農民의 生活必需品 流通過程에서 中間商人들에게 收奪되던 農民의 所得部分은 대부분 農民 또는 農協자체의 收入으로 환원되거나 稅收 增大를 초래할 것인 까닭에 農業등 生産的 産業에의 投資가 그만큼 증대될 것이다. 그 밖에도 農協은 農業信用과 農村振興事業의 기능을 아울러 가져야 하겠지만, 農協을 經由하는 農産物 및 生活必

需品 등의 流通機構를 확립해야 한다는데 문제의 核心이 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農產物의 販賣가 農協을 통해 행해짐은 물론, 精米 精麥 및 製粉과 農酒釀造 그리고 그 밖에 간단한 農產物의 第一次的 加工도 農協이 直營하고 肥料 農藥 飼料 및 農民의 日用必需品 등의 購買도 農協을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肥料 農藥 飼料 등의 생산에 農協이 出資 혹은 그 밖의 형식으로 참여하여 농민을 收奪하는 根源을 막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농민 周邊에 기생하여 前近代의 樣式으로 농민을 수탈하는 모든 中間搾取를 농민 혹은 農協 자체의 收益으로 환원함으로써 農業信用自體의 財源을 스스로 마련하여 농민의 生産意欲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農村振興事業도 受動的이거나 官僚的인 農民敎導에서 스스로 일을 찾아서 농민에 奉仕하는 積極的인 活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모든 農政機構를 農協으로 一元化하고 農協 자체를 농민의 자발적이고도 의욕적인 參與意識에 의해 발전되도록 誘導해야 할 것이다. 低利의 農業信用에 의해 농민을 高利貸資本의 原始蓄積對象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면 이처럼 農協 그 자체가 收益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濁酒 精米 등 農產物加工 飼料生産을 農協이 直營하게 되면 농민의 利益을 最大限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中間商人과 각종 브로커 등 非生産者層의 所得을 産業資本으로 動員할 수 있는 制度의 確立이다.

農產物의 流通過程에서나 마찬가지로 工業原料 및 工產品의 流通過程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中間商人이나 브로커가 介入하여 原料生産者나 특히 中小製造業者들은 물론 最終需要者의 所得을 크게 收奪한다.⁽²⁷⁾ 물론 이런 現象은 商品의 輸出入過程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前近代的 流通過程의 近代化 없이는 經濟剩餘의 産業資本化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中間商人이나 브로커의 收益은 직접 消費되든가 아니면 流通部門에서의 投機 혹은 不動產投資 등 非生産的 投資로 지향하는 것이 후진국의 일반적 現象이기 때문이다.

流通機構의 近代化는 中間流動過程에 있어서의 在庫投機 혹은 外換投機 등을 排除하여 生産者들의 所得이 非生産者層으로 移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生産者層의 收入增大 혹은 政府의 稅收增大를 통해, 생산적인 産業에의 再投資를 피하여 經濟發展을 도모하자는데 그 目的이 있다. 그런데 流通過程에서 中間商人이나 브로커의 介入을 배제하자면, 職能別로 生産者組合을 형성하여 原料나 製品의 모든 去來를 이들 組合을 통하게끔 해야 할

(27) 『서울經濟新聞』 1965年 1月 16日字 및 2月 2日字 參照.

것이다. 그리고 組合 對 組合의 去來는 물론이고 가능한 한 企業 對 企業의 去來를 銀行의 當座計定을 통해 決濟되게끔 組織化하면 個別企業의 原料投入量과 製品生産量을 科學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制度는 資源의 合理的인 產業別 配分을 계획할 수 있는 利點을 가질 것이다. 동시에 政府는 流通過程에 介入함으로써 보다 精確한 課稅와 稅收增大를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價格政策에 의하여 資源의 浪費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價格機能을 이용한 合理的인 資源의 配分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組合의 構成은 民間企業의 代表者 및 專門家를 위주로 해야겠지만, 아마 政府官吏도 派遣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流通過程에 미치는 거의 모든 經濟政策은 이들 職能別 組合을 단위로 하여 수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諸制度는 農協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 물론 水協과 漁協도 農協과 같은 性格을 띠는 것이다. 그러나 鑛業 製造業部門에서는 職種別로 보다 細分化된 組合을 형성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利害關係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와는 다른 政策의 措置가 있어야 할 것이다. 農協 및 각종 製造業組合의 형성과 그것을 토대로 하여 流通機構를 近代化하면 脫稅를 위한 生産量의 虛偽申告가 배제될 것이므로 각종 統計의 正確性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經濟行政과 經濟計劃의 執行을 科學化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流通部門에 있어서의 在庫投機에 기인한 物價變動은 물론 中間商人의 暴利가 상당히 제거될 것인 만큼, 物價安定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후진국에 있어서의 物價昂騰은 貨幣數量說的 要因 이외에도 投機商人의 暴利 및 그러한 暴利가 기준이 되는 高利貸 利子率에 의해 크게 影響을 받는다. 따라서 流通機構를 近代化하면 商業資本과 高利貸資本의 原始的 蓄積은 대폭 減殺될 것이고, 物價도 價格政策 및 租稅政策에 의해 政府가 効率的으로 調節할 수 있는 戰略變數가 될 것이다.

셋째로 職能別 生産者組合은 성질상 統制機構이지 그 자체가 生産機構는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生産者組合은 經濟行政 면에서 보다 넓은 類別로 總括되는 政府經濟部處 傘下에 들어 가게 될 것이며, 또한 각종 經濟部處를 管掌하는 經濟計劃院 傘下에 들어 갈 것이다.

이러한 體制는 원칙적으로 私有財產制度和 生産者들의 자유로운 經濟活動에 토대를 둔다. 그러나 在庫投機 高利貸 外換投機 그 밖의 각종 브로커들의 비생산적 所得의 源泉을 폐쇄할 것이며 不動產投資나 奢侈性을 띤 消費用役業들에 대해서는 租稅政策 등으로 抑制하는 새로운 社會秩序가 형성될 것이다. 이를테면 前近代의 資本蓄積樣式이 止揚되고 近代의 資本蓄積樣式이 확립되어 傳統的 社會가 近代의 產業社會로 변모될 것이다. 물론 이런 경제체제가 하나의 秩序로서 機能하려면, 輸送이나 金融組織 등에서도 이러한 社會에

알맞는 制度의 改革이 필요함은 두말 할 여지도 없다. 이와 같은 體制는 이데올로기는 다르지만 「파시즘」이나 그 밖의 統制經濟의 經濟體制와 類似한 점을 가지며, 農協은 부분적으로 臺灣 印度 「버어마」등의 그것과 그 次元을 같이 한다.

넷째로 여기에 轉換期의 諸問題가 제기된다. 이러한 制度改革에 의해 야기되는 社會的 摩擦과 失業問題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다. 制度改革 그 자체가 현재의 支配的 經濟勢力의 利害關係와 크게 相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政治的 社會的 摩擦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후진국은 이러한 制度改革을 단행할 수 있는 政治的 리더쉽과 그것의 社會적 基盤을 이루는 엘리트의 형성 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다. 정치적 社會적 摩擦이 순전히 國內的 要因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면 그렇게 심각한 樣相을 띠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新興經濟勢力에 의해 驅逐되어야 할 傳統的 經濟勢力이 先進國의 獨占資本과 結合되어 對抗할 때는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諸問題를 야기하게 한다. 낡은 傳統的 經濟勢力과 技術으로 앞서는 先進獨占資本은 문제의 후진국의 傳統的 社會構造를 그대로 持續시키는데 같은 利害關係를 갖기 때문에 어디서나 兩者는 結合되어 新興勢力에 對抗하며 이러한 諸要因이 후진국의 經濟發展을 위한 社會改革의 근본적인 隘路인 것이다.

制度改革에 수반되는 정치적 社會적 摩擦이 이처럼 심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失業問題는 예상과는 반대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中間商人과 브로커 그 밖의 投機業者들을 배제하는 것이지 절대적 多數를 차지하는 小賣商과 같은 商人 그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새로 형성되는 組合들은 새로운 雇傭機會를 創造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中間商人등 非生産者層에 生産的 投資機會를 열어주어야 할 過渡期의 문제가 제기 될 것이다.

다섯째로 후진국의 獨占財閥에 관한 문제이다. 후진국의 獨占企業은 先進資本主義國家의 그것과는 對照的으로 買辦的 消費財加工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후진국 일반에 공통되는 現象이다. 그리고 후진국의 그러한 加工業은 성질상 불가피적으로 선진국의 機械工業 重化學工業 電氣機器工業 및 그 밖의 精密工業과 施設面에서나 原料面에서 隸屬關係를 맺고 있다. 그러한 예속관계가 지속되는 한 후진국에서는 投資의 後方連鎖効果는 기대할 수 없는 까닭에 技術의 發展이나 生産적 雇傭의 機會는 創造되지 않으며 따라서 生産力發展이란 國家利益은 추구될 수 없다. 그러한 반면에 후진국은 所得水準이 낮고 傳統의 生活樣式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商品에 대한 市場이 좁다. 이리하여 消費財加工을 위주로 하는 이들 大企業은 先進國型的 獨占 아니면 寡占의 형태를 띠고, 다른 한편에서는 多數의 農民과 中小工業을 상대로 하여 少數의 中間商人에 의한 流

通部門에 있어서의 購買의 獨占 내지 寡占이란 後進國型的 獨占態形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이리하여 買辦性을 띤 現代的 加工業과 中間商人, 그리고 이들 中間商人의 周邊에서 寄生하는 高利貸金者나 각종 브로커 및 그 밖의 投機業者들은 傳統的 經濟構造를 가짐으로써 해서 그들의 私益은 증축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獨占의 내지 寡占의 加工業은 外資나 技術을 선진독점자본의 市場擴大政策의 手段, 즉 借款과 原料 및 技術의 提携라는 형식으로 마련하지만, 內資는 工業化政策의 일환으로 政府의 經濟的 特惠에 의하여 調達한다. 臺灣의 경우 現代工業은 內資의 80%를 特惠融資 받고 있으며, 우리의 第2次 5個年計劃에서는 50%의 融資가 약속되어 있다.⁽²⁸⁾ 이러한 好條件과 特惠를 배경으로 후진국에서는 家族財閥이 형성되며, 中小企業이 아직도 많은 比重을 차지 하는 消費財加工業을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市場價格이 이들 大加工業과 競合關係에 있는 中小企業의 限界生産費 혹은 그 以下 (이때는 遊休中小企業施設을 가지며, 흔히 稼動率이 낮다고 表現됨)의 水準에서 결정되는 만큼, 生産性이 높은 獨占財閥의 獨·寡占利潤率은 극히 높다. 그리고 高率의 獨·寡占利潤은 이 亦是 中間商人의 購買寡占利潤率의 支配를 받아 항상 높기 마련인 高利貸利子率에 의해 正當化되고 合理化된다. 이처럼 禁斷의 果實을 獨占하려는 家族財閥의 門戶閉鎖는 中産層의 遊休資金의 生産적 投資機會 마저 박탈한다. 家族財閥을 公開法人化하여 中産層의 零細遊休資金의 生産적 投資를 촉구하려면, 財閥에 대한 特惠融資方式을 制限하고, 이미 融資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時價로 換算(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하여 政府 혹은 銀行의 直接投資로 전환시켜 그 株式을 證券市場에서 賣却하는 것이 資源의 비생산적 浪費를 막고 資本의 廻轉率을 높이는 가장 理想的인 方法일런지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經濟開發計劃에서는 民間資本의 부족분에 대해 特殊投資銀行이 直接投資하여 工場이 稼動한 後의 그 株式을 證券市場에서 賣却하는 편이 株式의 分散을 통한 民間資本의 生産적 調達體制를 확립하는데 크게 寄與할 것이다.⁽²⁹⁾

이러한 政策과 制度的 措置는 近代化 初期에 日本이 그러했듯이 가능한 限 特殊投資銀

(28) 臺灣土地銀行은 工業團地를 건설하여 민간에 매도하나 공장부지 및가의 80% 및 공장건설 비용의 80%를 민간기업에 융자해 주고있다. 臺灣은 대륙으로부터 온 정치인들에 의해 臺灣原住민들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지배세력을 고려함이 없이 근대화에 필요한 철저한 制度改革을 단행하였지만 현대 공업에 대해서는 융자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융자를 받는 사람들은 그 대부분이 원주민 아닌 대륙으로부터의 이주자들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경제적 세력층이 형성되어가고 있다.

(29) 投資銀行에 관한 각국의 제도에 대해서는 약간 낡은 것이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못하지만, W. Diamond, *Development Banks, The Economic Development Institut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he Johns-Hopkins Press, 1957* 을 參照하기 바란다.

行으로 하여금 外資導入을 代行케 하고, 民間企業에 이 特殊投資銀行이 直接 外資에 의한 投資를 하든가 아니면 融資를 하게 하는 것이 더욱 合理的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導入條件을 有利하게 할 것이고, 經營面에 있어서의 隸屬 및 資本逃避등 外資導入을 둘러싼 諸難點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니 말이다. 이처럼 混合經濟體制는 金融機構도 그만큼 달리하게 된다.

여섯째로 獨占財閥과 관련하여 國有化 문제가 제기된다. 混合經濟體制는 원칙적으로 私 有財產制度에 토대를 두는 것이나, 資源의 配分에 관한 한 流通機構의 混合經濟的 近代化에 의해 강력한 政府統制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公益事業이나 基礎工業은 모든 民間企業과 國民大衆에게 미치는 경제적 影響으로 보아 國有와 國營을 考慮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消費財工業이라 하더라도 大衆의 絶對의 大量需要를 奇貨로 暴利를 취할 수 있는 範疇에 드는 大企業은 價格政策의 效率의 집행 혹은 內資動員의 한 手段으로서 國有化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技術의 革新이 尤甚하여 尙상 創造의 努力이 필요하며, 따라서 官僚主義의 經營에 不適한 것은 民間企業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끝으로 制度改革과 아울러 後進型 混合經濟體制의 또하나의 屬性인 經濟的 民族主義에 대해 간단히 論及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경제적 民族主義는 制度와 政策 양면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가 논술한 바와 같이 政府資本 및 外國資本의 一元的 投資機關으로서의 特殊投資銀行制度는 물론 그 밖에 保護關稅制度和 補助金制度등은 전자에 속한다. 그러나 그러한 制度만으로는 經濟的 民族主義가 구현되지 못할 것이다. 原始產業의 特化를 尙요당하고 있는 19世紀的인 靜態的 國際分業에서 脫皮하여 經濟的 自主성과 成長率이 보다 높은 工業部門에서의 動態的 國際分業을 궁극의 政策目標로 하는 內包的 工業化가 요청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工業化만이 안으로는 資源을 생산적 부문으로 配分하게 됨으로써 資本의 原始的 蓄積性向을 產業資本의 蓄積性向으로 바꾸어 經濟活動樣式을 近代化하고 밖으로는 비록 政治的으로는 獨立했지만 아직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隸屬性을 탈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VI. 結 論

지금까지의 分析을 要約·整理할 단계에 도달하였다.

經濟體制란 그것을 구성하는 諸經濟制度가 서로 矛盾·對立하지 않고 하나의 綜合的 體系를 이루는 社會秩序이다. 그리고 그것은 現存하는 支配的 經濟勢力의 利害關係를 代辯·

擁護하는 諸經濟制度를 갖기 마련이나, 그러한 私益이 國民生産力の 發展이란 國家利益과 矛盾・對立될 때는 生産力 發展에 알맞는 諸經濟制度가 創造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經濟體制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리하여 낡은 諸制度에 기반을 둔 經濟勢力은 새로운 諸制度에 알맞는 經濟勢力에 의해 交替된다.

國民生産력과 經濟體制를 형성하는 諸經濟制度와의 관계는, 生産力の 발전이 經濟制度 및 經濟體制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경제적 制度나 體制의 改革이 반대로 生産力の 발전을 가져다 주는 특수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가장 先頭를 달리는 國民經濟는 대체로 前者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에 後續하는 國民經濟는 後者に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先進經濟의 경우는 國民生産力の 발전이 경제적 諸制度와 體制를 變革케 하는 데 獨立變數의 역할을 하여 왔고, 반대로 後進經濟의 경우는 諸制度와 體制의 改革이 國民生産力を 발전시키는데 獨立變數의 역할을 하여 온 것으로 해석된다.

生産力の 發展이 經濟體制 變革에 支配的인 역할을 한 선진국 經濟體制의 系列은 重商主義—産業資本主義—獨占資本主義—修正資本主義로 파악되며, 經濟制度의 改革이 生産力の 發展에 지배적 역할을 한 후진국 經濟體制의 系列은 重農主義—保護主義—三民主義(하나의 理想型)—後進國型 混合經濟體制로 파악된다. 이리하여 같은 時代的 背景을 가지면서도 國民經濟의 個性的 差異 혹은 獨自性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經濟體制는 서로 다를 수 있고, 오히려 후진국의 경우 그들의 個性에는 適合하나 선진국의 그것과는 다른 經濟體制를 創造함으로써 國民生産力の 飛躍的 發展을 가져 왔고, 그러한 體制를 갖지 못한 후진국은 경제적 後進性을 탈피하지 못한 것이 歷史의 教訓인 것 같다.

따라서 경제적 後進性을 성공적으로 克服한 후진국 經濟體制의 系列은, 선진국의 그것과 對應하면서 같은 時代에 共存한다. 즉 重商主義 對 重農主義, 産業資本主義 對 保護主義, 帝國主義 對 三民主義 그리고 修正資本主義 對 후진국형 混合經濟體制가 그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區分하고 對比한다고 해서 거기엔 自然科學的인 의미에 있어서의 精密性이 있는 것이 아니다. 文化的 傳統과 國民의 個性의 特殊性 여하에 따라 그 概念의 內涵에 상당한 差異가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선진국 經濟體制의 變化要因을 經濟發展段階의 差異에 근거를 두고서 논했고, 후진국 經濟體制의 變化要因을 國民經濟의 個性的 差異, 특히 경제적 후진성에 근거를 두어 논했다. 물론 國民經濟의 個性은 生産力 發展의 程度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自然的 環境 혹은 文化的 傳統등에 의해서도 獨自的인 個性을 갖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러한 個性的 差異로 生産力の 發展段階가 같으면서도 經濟體制는 달라진다. 生産力の 發

展段階로 보아 다 같이 獨占資本主義를 계승하면서도, 資源을 가지는 이른바 「가지는 나라」는 修正資本主義로 變形하고, 반대로 資源이 貧弱한 이른바 「가지지 못하는 나라」는 「과시즘」으로 變形한 歷史的 事實은, 國民的 個性의 차이가 自然環境에 基因된 것으로 해석 된다.

그런데 여기에 「마르크스」社會主義에 理論的 기반을 둔 經濟體制가 있다. 우리가 앞에서 學論한 후진국 經濟體制의 系列은, 비록 그것이 歷史的 事實이긴 하지만, 理論上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系列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國民生產力의 발전이란 國家利益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保護主義아닌 다른 어떤 經濟體制로서도 선진국의 產業資本主義에 對항해서 그들의 國民生產力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經濟적 後進性을 극복하고 保護主義나 마찬가지로 未久에 선진국 隊列에 올라설 수 있었을런지도 모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獨占資本主義의 爛熟期를 의미하는 帝國主義에 對항해서 후진국이 그들의 國家利益을 保障할 수 있었던 經濟體制가 비단 三民主義일 수만은 없다. 이른바 社會主義者들이 말하는 「마르크스-레닌」主義的 經濟體制도 이 時代에 있어서의 가능한 여러가지 후진국 經濟體制 중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社會主義가 「마르크스」의 豫言과는 달리 하필이면 가장 經濟적으로 후진국이었던 「러시아」에서 탄생되지 않을 수 없었던가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와는 다른 理論的 根據에 서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을 것 같다. 自由放任으로서의 排擊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뿌리깊게 浸透한 外國資本, 封建的 半農奴制度에 對해 衝擊을 준 갑작스런 近代의 諸制度의 導入, 帝政「러시아」의 秘密警察制度 및 그 밖의 文化的 傳統이 社會主義와 동시에 「러시아」의 個性을 갖는 이른바 「마르크스-레닌」主義的 經濟體制를 만들어 낸 諸要因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人間性의 排除나 餘他的 文化的 價値에서 볼 때 많은 缺點을 가지면서도, 그러한 無慈悲하고 過激한 體制였기 때문에, 오히려 보다 合理的이고 理念型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孫文의 三民主義가 不發彈에 끝나고 만데 반해, 經濟的 近代化만을 爭取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마르크스」와 「슈페터」는 각각 다른 理論的 근거에 입각하고는 있지만, 資本主義 다음 世界를 社會主義社會라고 展望한다. 그러나 그들은 近代史에서 主演俳優의 역할을 한 先進 資本主義經濟에 근거를 둔 歷史的 一般性만을 강조하였지, 助演俳優의 역할을 한 많은 後進經濟가 近代史에 미친 影響을 輕視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다 같이 歷史現象의 個性을 沒却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그러한 命題는 바로 다름아닌 그의 後繼者 「레닌」에 의해 否定되었던 것이다. 社會主義者들이 아무리 구구한 辯明을 하더라도

가장 경제적으로 후진국이었던 「러시아」에서 社會主義가 탄생했다는 歷史的 事實은 「마르크스」의 命題를 論證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社會主義는 오늘날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後進國 經濟開發方法 중의 하나임엔 틀림없지만, 보다 非正常的 開發方式인 동시에 非合理的인 經濟體制일런지도 모른다.

「마르크스」社會主義도 生産力의 發展段階에 따라 그 概念의 內包가 달라진다는 一般的 法則을 拒逆할 수는 없다. 마치 先進國型 產業資本主義가 自由放任主義였는데 비해 後進國型 產業資本主義가 保護主義였던 것처럼, 「마르크스」社會主義도 先進型과 後進型으로 분류된다. 소련이 修正社會主義體制로 變形하였는데 中共은 「스탈린」主義를 固守하려 한다. 中蘇理念紛爭의 經濟的 要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生産力의 발전이란 國家利益을 위해 소련은 修正主義로 바뀌지 않을 수 없었고, 中共은 오히려 「스탈린」主義가 보다 適合한 것으로 보인다.

產業資本主義 이후의 經濟體制의 諸類型, 保護主義, 三民主義, 「파시즘」및 두개의 「마르크스」社會主義와 그 밖의 모든 가능한 社會主義의 諸經濟體制를 우리는 일단 近代的 經濟體制라고 定義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近代的」이란 뜻은 資源의 非生産的 配分을 특징으로 하는 傳統的 經濟體制에 비해 資源의 生産的 配分을 특징으로 하며 따라서 경제적 발전을 期待할 수 있는 經濟體制라는 뜻에서 이다. 바꾸어 말하면 단순한 富의 一方的 移轉을 뜻하는 資本의 原始的 蓄積에 알맞는 傳統的 經濟體制와는 반대로 民間에 의해서든 政府에 의해서든 간에 產業資本의 蓄積을 특징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近代的 經濟體制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경제체제이든 歷史的 遺産을 토대로 새로운 經濟體制를 창조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歷史的 遺産 或은 敎訓으로서 引繼받은 諸經濟制度를 새로운 原理에 의해 修正하여 適用하거나 부분적으로 새로운 制度를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社會秩序로서의 새 經濟體制를 확립했던 것이다. 理念的으로 완전히 상처되는 社會主義 經濟體制가 대부분의 資本主義的 經濟制度를 그들의 原理에 맞게끔 修正하여 適用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 점을 입증한다. 따라서 오늘날 新生獨立國家인 후진국의 經濟體制를 문제삼을 때에도 그것을 형성하는 諸經濟制度가 모두 새로 창조된 制度일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제 후진국을 위해 가장 合理的인 經濟體制라고 생각되는 후진형의 混合經濟體制에 관한 分析을 要約해 보기로 한다. 먼저 후진국 經濟制度 改革의 問題點부터 밝혀 두는 것이 順序일 것 같다.

첫째로 후진국의 경제적 近代化를 가로막고 있는 傳統的 내지 前近代的인 制度上的 諸要素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스토투」教授는 이 점에 관해 所得의 흐름에 있어서의 支配力을 非生産者層에서 生産者層으로 移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所得의 흐름에 있어서의 支配力이 傳統的 내지 前近代的 經濟勢力層, 이를테면 中間商人 브로커 外換 投機 혹은 不動產投機를 일삼는 者에게 있는 限 「바란」(P. Baran)이 말하는 經濟剩餘는 非生産的으로 支出되거나 결국 再分配나 다름없는 消費過程을 맑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支配力을 近代的 生産者層—그것이 政府이든 民間이든 간에—에게로 移動시켜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資本의 原始的 蓄積樣式을 특징으로 하는 社會的 經濟活動을 產業資本의 蓄積이 支配的 몫을 차지하는 社會的 經濟活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社會的 欲求를 충족시켜주는 經濟制度의 改革 내지 創造가 있어야 한다.

둘째로 후진국의 經濟體制는 19世紀 후진국의 保護主義가 그러했듯이 그들의 國家利益을 충족시켜 주는 政策이 具現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19世紀 후진국은 다만 落後되어 있는 그들의 工業을 保護하는 것만으로 國民生産力의 발전이란 그들의 國家利益을 보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新生獨立國은 事情이 좀 다르다. 그들의 國內工業이 단순히 落後되어 있는 程度의 것이 아니라, 先進國 工業에 경제적으로 隸屬되어 있는 것이다. 비록 植民地時代처럼 製造品 對 原始商品의 形式으로 後進經濟가 隸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隸屬關係를 부분적으로 지속하면서도 獨立 後 建設된 國內의 消費財加工業이 선진국의 重機械工業 및 重化學工業에 그 施設 및 原料의 需要面에서 隸屬되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消費財加工業은 國內에서 대체로 獨·寡占形態를 취함으로써 단순히 선진국의 確固한 商品市場의 구실 밖에 못하는 買辦的 성격 을 띠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후진국의 工業化政策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自立性을 찾는 데 있어야 하며, 오늘날의 경제적 輿件으로서 는 不得已 內包的 工業化라는 이른바 內向的 民族主義를 志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20世紀 후반기의 國際分業은 이미 南北貿易에서 東西貿易으로 指向한지 오래고 더구나 植民地를 喪失한 선진국은 產業多樣化政策의 一環으로 農業을 보호하고 있을뿐 아니라, 國際貿易의 中樞를 이루는 美國등 선진국이 農業部門에서 過剩生産에 허덕이고 있으며, 雪上加霜으로 合成原料의 發明은 그만큼 先進工業이 原料를 후진국에 의존않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新生獨立國家의 工業化는 外的으로 內包的 工業化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植民地에서 이탈된 이들 諸國의 民族主義는 자연히 內向的 民族主義로 달음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후진국의 經濟制度는 이처

럼 內向的인 經濟的 民族主義를 충족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후진국의 經濟體制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그들의 國家利益을 保全할 수 있을 것인가가 다음의 문제이다. 물론 가능한 여러가지의 經濟體制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近代的 資本主義, 「파시즘」 그리고 각종 형태의 社會主義體制도 傳統的인 經濟活動樣式을 近代的인 그것으로 止揚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手段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合理的이고도 正常的이며 民主主義的 諸要素를 堅持하는 경제체제인 것이다. 왜냐 하면 人間의 社會生活은 經濟生活이 그 전부가 아니며, 오히려 經濟活動은 보다 高次的인 目的達成을 위한 단순한 手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諸要素를 충족하는 경제체제를 「민트」의 概念에 따라 後進型 混合經濟體制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로 農業革命과 관련된 制度改革이다. 土地改革에 의해 半封建的 小作制度를 止揚함으로써 農業으로부터 발생하는 經濟剩餘를 生産의 投資로 돌릴 수 있는 制度的 基本構造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農業을 主要的 所得의 흐름에 있어서의 支配力을 非生産者인 地主로부터 農民에게 移動케 함으로써 農民으로 하여금 農業 혹은 그 밖에 生産的으로 投資하게 하는 制度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農業革命은 土地改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農業은 封建的인 傳統的 勢力에 의해서만 아니라, 前近代的인 商業資本에 의해서도 그들의 經濟剩餘가 수탈당해 왔던 것이다. 더구나 地主가 없는 農業部門은 많은 自作農이나 零細農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少數의 中間商人 對 多數의 農民으로 農產物 및 生活必需品의 販賣 내지 購買市場이 형성된다. 따라서 후진국에서는 流通部門에서 후진국 특유의 寡占의 競爭이 발생하며, 中間商人에 의한 農民의 收奪은 더욱 甚해진다. 그러므로 農產物 및 農民의 生必需品의 流通機構를 近代化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農業部門에 있어서의 流通革命은 農協이 종래의 中間商人의 機能을 代行함으로써, 農業剩餘를 農民 혹은 農協 그 자체의 收入으로 還元케 하거나 政府의 稅收入形態로 生産에 動員하는데 政策의 焦點이 겨누어져야 할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中央集權的 流通機構 (Central Marketing System)이나 臺灣의 農會組織 (Farmer's Association System) 혹은 「버어마」나 印度의 國營流通機構 (State Marketing System or State Trade System)는 그 좋은 例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土地改革이나 流通革命이 궁극적으로 半封建的 土地資本이나 中間商人資本 혹은 高利貸資本등의 生産的 轉換에 그 目的이 있는 만큼 이러한 農業革命은 그러한 非生産的 資本의 生産的 動員이 가능한 工業化計劃을 隨伴하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여지도 없다.

둘째로 流通革命은 비단 農業部門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工業部門이나 그 밖의 商業·用役業部門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中間商人과 각종 「브로커」 그리고 高率의 商業利潤에 寄生하여 그것을 半分하는 高利貸 金者등 非生産者層에 의한 所得의 支配力을 生産者層으로 移動케 하자면, 流通部面 全般에 걸친 近代의 流通機構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이 부문에 있어서의 制度改革의 原理도 農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즉 小賣業務를 제외한 中間流通機構는 職能別로 組織된 生産者組合에 의하여 代行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中間商人의 排除는 그들의 所得을 각 生産者組合 혹은 生産者 그 자신에 還元할 수 있을 것이며, 租稅政策의 執行도 生産者組合을 對象으로 할 수 있는 만큼, 徵稅費의 減少와 脫稅防止에 의한 稅收增大를 기할 수 있는 稅政의 科學化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生産者組合을 效率的으로 運用하고, 正確한 財貨의 生産과 流通을 파악하여 脫稅를 事前에 방지하자면 金融機構를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最終需要者를 제외한 모든 去來를 手票去來로 定型化하여 銀行의 當座計定을 통해 決濟되게 함으로써 原料나 製品의 橫流에 의한 脫稅 혹은 原料配定에 있어서의 不正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職能別 生産者組合은 統制機構이지 生産機構가 아니며, 따라서 그러한 生産者組合을 政策的으로 指導하고 監督하며, 동시에 政策的 目的을 달성할 수 있겠끔 政府機構를 改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生産活動에서는 原則的으로 私有財產制度和 企業의 自由를 인정하면서도 資源의 浪費를 방지하고 그 配分을 政府가 計劃하는 대로 生産적으로 配分할 수 있었던 「과시즘」의 流通機構와 政府機構는 後進國 混合經濟體制에서도 援用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과시즘」 그 자체의 이데올로기와 經濟制度는 別個의 문제라는 점이다. 소련의 社會主義가 많은 부문에서 資本主義의 諸制度를 援用하면서도 그 運營에 있어 資本主義와는 判異하다는 사실은 하나의 敎訓이 될 것이다.

넷째로 獨寡占財閥에 관한 문제이다. 後進國의 寡·獨占은 이미 言及한 바 있는 流通部門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製造業部門에서는 특히 消費財加工業 혹은 耐久消費財加工部門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부문에서 財閥이 형성되면, 이들 財閥은 施設 原料 및 技術 면에서 선진國의 重機械工業 重化學工業 및 精密機械工業에 隸屬되어 買辦의인 下請關係를 맺는 것이 通例이다. 이러한 下請關係가 지속되는 限 이 부문에의 投資는 產業聯關의으로나 有効需要의 原理로서나, 國內에서의 誘發投資를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後進國에서는 工業化란 名目아래 이들은 金融面에서 特惠

措置를 받음으로서 家族財閥을 형성하는 것이 또한 通例이다. 따라서 이들이 財閥을 형성하는 데는 企業家로서의 創造의 精神도 물론 作用한 것이지만, 보다 더 직접적인 要因은 政治勢力과의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家族財閥의 형성은 自動的인 民間資本의 動員을 크게 制約한다. 低利의 融資는 비단 인플레이션의 累進이 없다 하더라도 그밖의 補助와 더불어 莫大한 利權의 機會를 제공한다. 融資制度가 있는 限 自動的 民間資本 動員機構, 즉 證券市場의 발전을 沮害하고, 株式의 大衆化가 불가능하게 된다. 開發銀行(development bank)에 관한 理論的 論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融資方式이 止揚되고 投資方式이 채택되는 경향이 있다. 開發銀行이 基礎工業이나 그 밖의 現代工業에 直接投資하여 그 株式을 證券市場에서 放賣함으로써 民間資本의 自律的 動員과 株式의 大衆化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金融組織의 改革도 요망된다.

그리고 民間에 의하여 建設이 곤란한 部門 혹은 企業에 대해서는 政府가 直接 投資하여 그것을 民營化하는 近代化 初期의 日本의 國家資本主義制度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轉換期의 諸問題가 야기된다. 후진국의 近代化는 社會學的으로 政治學的으로 볼 때 社會勢力의 交替를 뜻하는 만큼 社會的 摩擦이 없을 수 없다. 특히 植民地로부터 해방된 오늘의 후진국은 선진국의 近代化過程에서 처럼 國內의 傳統勢力과의 鬭爭도 문제이지만 國內의 下請的 加工業과 結付되어 있는 先進獨占資本에 의한 壓力도 문제가 된다. 그 뿐 아니라 傳統的 내지 商業資本主義 혹은 高利貸資本主義의 諸制度의 持續이 國內 傳統勢力이나 先進獨占資本에게 다 같이 有利한 만큼 이들 兩勢力의 結合은 흔히 후진국의 近代化를 沮害하는 결정적 要因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후진국에서 民族主義가 高唱되는 이유의 하나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轉換期에 있어서의 失業問題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일시적으로 摩擦的 失業은 발생하겠지만 投資의 증대에 의한 生産的 雇傭機會의 보다 많은 創造가 오히려 雇傭문제를 好轉시킬 것이다. 流通革命에 의한 摩擦的 失業도 流通部門에서 가장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小賣業 내지 그 밖의 用役業에는 큰 變動이 없고 다만 中間商人 혹은 브로커가 배제되는 반면 生産者組合도 近代的 流通機構에서 고용기회를 創造하므로 큰 社會問題가 될 수 없다. 既存의 經濟勢力을 代辯하는 매스컴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전혀 別個의 문제인 것이다.

끝으로 후진국의 工業化가 內包的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이 內向的 民族主義를 志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논술한 바이다. 內向的 民族主義를 俱現하

자면, 첫째 政策的으로는 內包的 工業化計劃이 필요하며, 둘째 制度的으로 이러한 工業化計劃을 뒷받침할 수 있는 關稅制度和 國內價格機構의 調整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內包的 工業化에 필요한 社會間接資本의 형성, 및 基礎工業의 확립등을 위해서는 그것을 組織的으로 推進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필요할 것이다.

〔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所長
서울大學校商科大學教授·學長 〕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System

*Hee-Bum Park**

Economic system is a social order in which the economic institutions as its component factors are not only consistent with each other but form an integrated organization. There may be some economic institutions which defend and support the interests of existing ruling economic powers. But if those private interests conflict with national interest, that is,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roductivity, the economic institutions must be changed to be appropriate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roductivity and in the result the character of the economic system is changed. In this way, the economic powers based on the old institutions will be substituted for the other economic powers suitable for the new institutions.

The relation between the national productivity and the economic institutions forming an economic system is divided into two cases: in general case,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roductivity determines the character of economic system; and in special case, on the contrary, the reform of economic system brings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roductivity. The advanced economies, I think, belong to the former, and the backward to the latter. In other words, in the advanced economy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roductivity has act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in reforming the economic institutions or system; in the backward economy the reform of the institutions or system has played a role of independent variable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productivity.

The series of the systems of the advanced economy, in the reform of which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roductivity has played a ruling role, may usually be understood as mercantilism, industrial capitalism, monopolistic capitalism, and modified capitalism. And also the series of the systems of the backward economy, in

* The author is dean and professor of economics,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also director and research member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ch the reform of economic institutions has played a ruling role i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roductivity, can be understood as physiocracy, protectionism, Sunwenism (a kind of ideal type), and backward countries' type of mixed economic system. Therefore, in spite of the background of the same age there may well be the difference in the economic systems between the advanced and the backward countries according to the individuality of national economy. The backward countries who created the economic systems suitable for their individuality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advanced countries have achieved the rapid development of national productivity; on the contrary, the backward countries without their suitable systems did not break away from economic backwardness. This is a historical lesson.

The economic systems in backward countries which conquered successfully their economic backwardness have coped and coexisted with those of advanced countries; namely, physiocracy with mercantilism, protectionism with industrial capitalism, Sunwenism with imperialism and finally backward countries' type of mixed economic system with modified capitalism. There is no doubt that this contrast or distinction has not the same exactitude as in natural science. It is also obvious that the implications of economic system vary to a large extent according to the peculiarity of cultural tradition and national individuality.

We have so far described the factors to change advanced economic systems in relation to the different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backward economic systems in relation to the difference of individuality—economic backwardness—in national economy. For that reason, by the difference of individuality many countries in the same development stage of productive power have adopted different economic systems respectively. Succeeding to the same monopolistic capitalism in view of the development stage of productive power, the “Have Nations” whose resources were rich have been transformed into modified capitalism on one hand, and the “Have-not Nations” whose resources were poor were transformed into fascism on the other hand. This historical fact proves that the difference of national individualities accrues partly from natural environments.

Here is, however, an economic system based on the theory of Marxian socialism. The series of economic systems in backward countries which I mentioned above, though they are historical facts,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alternatives in viewing from the theoretical aspects. For example, economic

systems other than protectionism might have opposed to the industrial capitalism of advanced countries, have developed their national productivity rapidly, and have wiped out economic backwardness; and in the result, the above economic systems might have brought up the countries to become members of advanced group in the near future as the protectionism has done. In the same way, the economic system which could have opposed to imperialism—the highest stage of monopolistic capitalism, and protected its national interest, may not imply only Sunwenism. We can say that the economic system of Marxism-Leninism was one of the possible systems in backward countries. Why Marxian socialism could not but be born in the most economically backward country, Russia, contrary to the prophecy of Marx, can not be explained without standing on the different theoretical ground from Marxism.

It seems to me that the deep-rooted foreign capital unable to be eliminated by laissez-faire, the sudden introduction of modern institutions shocking the feudal semi-serfdom, the secret police system of Imperial Russia, and other cultural traditions, etc. were the factors to have made out the economic system of Marxism-Leninism which is a sort of socialism having Russian individuality. From the viewpoint of the exclusion of humanity and other cultural values, that system has many faults. But that ruthless and violent system has accomplished economic modernization. On the contrary, Sun Yat-sen's Three People's Principles which is more rational and ideal than Marxism-Leninism has ended in a failure.

Though Marx and Schumpeter were based on the different theoretical ground, both foresaw the coming world after capitalism to be socialist society. But they emphasized only the generality of history based on the advanced capitalist economies which had played a leading role in modern history; they neglected the various effects of the supporting role of a number of backward economies on the modern history. In this sense, they have forgotten the individuality of historical phenomena. It can be known from the fact that the proposition of Marx—the most advanced capitalist economies will transform into socialism in the first place—was denied by the very man, Lenin, his genuine successor. In spite of long and boring explanation by the socialists, the historical fact that in the most economically backward country, Russia, was born socialism for the first time, contradicts the proposition of Marx.

I do not doubt that Marxian socialism is one of the alternative ways in

economic development of backward countries. But this system may be irrational economic system as well as abnormal.

Marxian socialism cannot destroy the general law that the connotation of a term vari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stages of productive power. Marxian socialism is classified into advanced and backward types, as same as advanced type of industrial capitalism implied laissez-faire and backward type of it protectionism. Soviet Union has recently transformed into revised socialist system, but Red China is to stick to Stalinism. In this very point the economic factor of Sino-Soviet ideological dispute is believed to lie. Soviet Union could not but transform into revisionism for her national interest, the development of productive power; on the contrary, to Red China Stalinism seems rather appropriate.

Various types of economic system after industrial capitalism—protectionism, Sunwenism, Fascism, two kinds of Marxian socialism and all other possible socialist economic systems, can be defined as modern economic systems. The word ‘modern’ in this place means that it is not the traditional economic system the characteristic of which is the unproductive allocation of resources, but the economic system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productiv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which makes, therefore, economic development possible. In other words, the word ‘modern’ does not imply the primitive accumulation of capital, i.e., merely one-way transfer of wealth, but the accumulation of industrial capital by private sector and/or government.

Here I must emphasize the point that any economy has created a new economic system on the basis of historical inheritances. A new economic system as a new social order was established by modifying the system taken over as historical inheritance or lesson according to new principles, or by creating partly new institutions. It is proved by the fact that socialist economic systems which are utterly hostile to capitalism in ideology have adopted capitalist institutions in modified form suitable for their principles. Therefore, in case we discuss the economic system in the backward countries which were emerged as independent nations in our times, we must keep it in mind that all the economic institutions constituting it can not and need not be newly created.

Now, let’s summarize the analysis of the mixed economy which is supposed the most rational economic system for the backward countries.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some problems in the reformation of economic institutions in the backward countries.

First, it is needed to remove some elements of traditional or pre-modern institutions which block the economic modernization of the backward countries. As for this point, Professor W. W. Rostow asserts that the control in the flow of income should be transferred from the unproductive class to the productive. So long as the control in the flow of income remains in the hands of unproductive or traditional economic powers, i.e., middlemen, brokers, foreign exchange or real estate speculators, etc., the economic surplus as once mentioned by P. Baran is laid out unproductively or penetrates into the same consumption process as redistribution in the end. Hence, the control must be transferred to the modern productive class, whether it is private and/or government. To say once more, the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which pursue the primitive accumulation of capital must be changed into the other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in which the accumulation of industrial capital plays a ruling role. To satisfy these social desires the existing economic system must be reformed or a new system must be created.

Second, the economic system in the backward countries must have the same institutional arrangements which can assure the realization of policies for national interests as the protectionism of backward countries in the nineteenth century had. The backward countries in the nineteenth century could guarantee their national interests, i.e.,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roductivity, only by protecting their infant domestic industries. But the case of the present emerging independent countries is very different from the above. Their domestic industries are not only infant, but economically subordinate to the industries of advanced countries. They are subordinate not entirely in the pattern of manufactured goods versus primary goods as in the colonial ages. Maintaining partly this type of subordination, they are subordinate mainly in the aspect that their domestic consumer-goods-processing industries constructed after their independence are dependent on the heavy machinery industries and heavy chemical industries of advanced countries in the demand side of their facilities and raw materials. And also those consumer-goods-processing industries are usually forming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positions in the backward countries, and they have comprador characteristics acting only as the fixed merchandise market for advanced countries.

Consequently, the industrialization policies in the backward countries must be ultimately focused on establishing economic independence. But in the present

economic conditions they must necessarily pursue the inward-looking nationalism aiming at the intensive industrialization. The reasons are as follows: the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in the latter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has changed long before from north-south trade to east-west; the advanced countries which have lost their colonies are protecting their agriculture as one means of industry-diversification policies; th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which forms the backbone of international trade are suffering from the overproduc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o make matters worse, by the invention of synthetic raw materials the industries of advanced countries do not so much depend on the raw materials of the backward countries as before. From the outside factors,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emerging independent countries enforces the intensive industrialization. Moreover, the nationalism of those countries which were liberated from the colonial rule is naturally rushing into the inward-looking nationalism. The economic system in the backward countries, therefore, needs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which can satisfy this inward-looking economic nationalism.

The next problem is which economic system can defend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backward countries. Of course, we can think of the variously possible economic systems; modern capitalism, Fascism and various types of socialist systems may be the adoptable in the point that they can change the traditional types of economic activities into the modern. But the economic system we intend to pursue must be one which is rational and normal to any extent on one hand, because the economic life is not all of the social life of man, and rather the economic activities are the mere means to accomplish the higher objectives; and which can maintain the nationalistic features on the other hand.

It will be identified that the backward countries' type of mixed economic system as H. Myint defined can satisfy the above requirements.

First, it needs the institutional reform related with the agricultural sector. The institutional framework must be arranged which can transform the economic surplus originated from agriculture into the productive investment by abolishing the semi-feudal tenant system through land reform. The institution need be arranged which can remove the control in the flow of income around the agriculture from the unproductive landlords to the farmers, so that the farmers can invest productively in agriculture or other sectors. Agricultural revolution, however, cannot be fulfilled only by the land reform. The economic

surplus in agriculture has been expropriated not only by the traditional feudal forces, but also by the precapitalistic merchant capital. Moreover, in the agricultural sector without landlords there are so many owner cultivators or petty cultivators that minor middlemen versus major cultivators form the selling or purchasing market for the necessities of life and the agricultural products. As the result, the oligopolistic competition peculiar in the backward countries occurs in the marketing process, and the expropriation of farmers by the middlemen becomes more excessive. Hence, the marketing mechanism for the farm products and the necessities of farmers need be modernized. The marketing revolu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must be focused on the following policy: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must take charge of the former function of middlemen so that the economic surplus can be resolved to the farmers or cooperatives themselves, or mobilized into production in the form of government tax revenues. Central Marketing System in Malaysia, Farmer's Association System in Taiwan, and State Marketing System (or State Trade System) in Burma and India, are the good examples.

As the land reform or marketing revolution aims ultimately at the productive transformation of the semi-feudal land capital, middle merchant capital or usury capital, such an agricultural revolution must coincide with the industrialization plan which makes possible the productive mobilization of unproductive capitals.

Second, the marketing revolution is needed not only in the agricultural sector but also in the industrial sector or other commerce and service sectors.

In order to remove the control in the flow of income from the unproductive classes to the productive classes, modern marketing system must be established in the overall marketing sector. The principles of institutional reform in this sector are the same as those in agricultural cooperatives: the intermediate marketing system excluding retail trade must be undertaken by the producer's associations which are organized respectively by occupations. This will transfer the incomes of excluded middlemen to the producers associations or the producers themselves; and therefore, it will be conducive to the reduction of tax-collecting expenses and the increase of government revenues, because the taxation policies can be executed against the producer's associations. To efficiently administer the producer's associations and to block the evasion of taxes by the exact grasping of the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goods, the financial institutions must be arranged. All the transactions excluding those with the final

demanders must be regulated in the check exchange and balanced through the current deposit accounts of banks, so that the evasion of taxes by the usurpation on raw materials or finished goods and by the unfairness in the allocation of raw materials can be prevented.

Third, the government organization must be so reformed that it can orientate and supervise producer's associ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olicies and can accomplish the objectives of them, because the occupational producer's association are not the production organization but the regulation organization. The marketing mechanism and the government organization of Fascism which, allowing in principle the private property system and the freedom of enterprise in the production activities, could obstruct the waste of resources by allocating the resources productively according to the government plan, may be utilized for the mixed economic system of the backward countries. Here we must keep it in mind that the ideology of Fascism is one thing and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it are another. It would be a good lesson that the Soviet socialism adopts many capitalistic institutions in various sectors, but administers them entirely differently from capitalism.

The fourth is the problem about the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financial cliques. The monopoly and oligopoly in the backward countries are formed not only in the marketing sector as already mentioned, but tend to be form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especially in the consumer-goods-processing industries or the durable consumer-goods-processing industries. These financial cliques generally have subordinate and comprador subcontract relations with the heavy machinery industries, the heavy chemical industries and the exact machinery industries of advanced countries in the aspect of facilities, raw materials and technology. As long as these subcontract relations are continued, the investment in these sectors can not expect the derived investments by linkage and/or multiplier effects.

In spite of these features, the financial cliques have received the special favor in finance under the name of industrialization and have generally formed family companies. In having formed the financial cliques, their creative entrepreneurship must have played a large role, but their connection with the political powers may have been a much more direct factor.

The formation of family financial cliques largely impedes the automatic mobilization of private capital. Low interest loans, even if there is not

progression of inflation, give enormous opportunities for vested interests along with other subsidies. So long as such a loan system exists, the development of the automatic mobilization machinery of private capital, i.e., the stock market, will be blocked, and the popularization of stocks will be impossible. Though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bank is still continuing, it is a general trend of many countries that loan policy is being substituted for investing policy. Development bank will be able to make the automatic mobilization of private capital and the popularization of stocks possible, for it can invest directly in the basic industries or other modern industries and sell the stocks openly in the stock market. Consequently, the reform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is desired.

In the particular economic sectors or industries which private capital can not undertake, government will be able to invest directly and dispose of the enterprises to private capitalists; this case was historically the state capitalism in the initial stage of modernization of Japan.

Fifth, various problems can be appeared in the transitory period. As the modernization of backward countries implies the change of social powers in the sociological and political aspects, there must be social frictions. Especially, the present backward countries which were liberated from the colonial rules must fight against the domestic traditional powers on one hand as in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of advanced countries; and must fight against the oppression by the advanced countries' monopolistic capital which is linked with the domestic subordinate processing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The maintenance of traditional, commerce capitalistic or usury capitalistic institutions are favorable to both of the domestic traditional powers and the monopolistic capital of the advanced countries. Therefore, the coalition of these two power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blocking the modernization of backward countries. Here is one of the reasons why nationalism is so prevalent in the present backward countries.

The unemployment problem in the transitory period may not be very important. Though frictional unemployment will occur temporarily, the more creation of productive employment opportunities will make it easier. The frictional unemployment in the retail trades or other services business which give the most of employment opportunities will be affected little by the marketing revolution. The exclusion of middlemen or brokers will be compensated by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created in the modern marketing organization

by the producer's associations. Consequently, the frictional unemployment cannot be an important social problem. It is a quite different problem how the mass communication defending the existing economic powers will treat this problem.

It is already mentioned that the industrialization of backward countries can not but have the intensive character and advance to the inward-looking nationalism. To realize the inward-looking nationalism; first, on the side of policy measures the intensive industrialization plan is necessary, second, on the side of institutions the tariff system and the adjustment of domestic price mechanism able to support the industrialization plan must be established. And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will be necessary which can systematically carry forward the plan in order to form the social overhead capital and to establish the basic industries essential for the intensive industrialization.